

---

第111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環境水資源委員會會議錄 第6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

日時 1999年3月3日(水) 午後4時

場所 環境水資源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生命의나무1000만그루심기諮問委員會條例案
  2. 1999年度環境管理室業務報告(環境保全·公園綠地分野)
-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生命의나무1000만그루심기諮問委員會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2面
  2. 1999年度環境管理室業務報告(環境保全·公園綠地分野) ... 42面
- 

(16時 07分 開議)

○委員長 金鍾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6차 환경수자원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존경하는 先輩·同僚委員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李弼坤 行政1副市長님과 都明正 環境管理室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23일 제1차 環境水資源委員會에서 生命의나무1000만그루심기諮問委員會條例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 동 위원회를 3회에 걸쳐 기이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은 地方自治法施行令 제4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례로서 이를 지적하고 위원회의결로 서울市長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高 建 서울特別市長을 대리하여 李弼坤 行政1 副市長께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 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한 후 副市長으로부터 경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1. 서울特別市生命의나무1000만그루심諮問委員會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6時 09分)

○委員長 金鍾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生命의 나무1000만그루심기諮問委員會條例案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먼저, 行政1副市長으로부터 서울特別市生命의나무1000만그루심기諮問委員會條例案이 제정되기도 전에 동 위원회를 기이 구성하고 운영한 사실에 대한 경위와 의견을 들은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行政1副市長님 나오셔서 앞에서 말씀드린 경위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1副市長 李弼坤; 行政1副市長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委員長님과 委員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委員님들께 아주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저는 委員님들 앞에서 산업진흥대책위원회의 조례가 議會에서 통과되기 전에 운영한 잘못이 있어서 여기

와서 委員님들 여러분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그 동안 委員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고 시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의 불찰로 인해서 불행스럽게도 또 이 자리에 서서 똑같은 건을 가지고 委員님들 여러분들께 다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아주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반성을 해 보면 이런 일이 재발된 이유는 전적으로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저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제가 위원장이 되어서 그 동안 운영회의를 개최했고, 개최하는 과정에서 조례의 議會 통과여부를 한번만 확인을 했어도 그 당시에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제가 소홀히 해서 이런 엄청난 결과를 빚었습니다. 뭐라고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변명이 될는지 몰라서 말씀드리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위원회가 10월 1일 구성이 되었고 서울시에서 12월 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12월 8일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 동안 약 2달 동안의 여유가 있었는데 그 동안 수차 제가 생각하기에 2~3차에 의회에 제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달이 늦었습니다. 늦은 이유는 변명이 됩시다만 조례에 대한 어떤 검토사항이라든지 또 위원회에서 할 일의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루어져서 약 2달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례가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위원회 운영했던 데 대한 이유는 안 된다고 저 스스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못 지킨 사람이 다시 약속하기는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회 사항뿐이 아니라 전 서울시의 위원회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저 스스로가 다시 한 번 새로운 각오로 委員님들 여러분께 약속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鍾來;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寬洙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寬洙 委員; 金寬洙 委員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는 서울시의회에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엄청난 포부와 철학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보려고 많은 관심과 설레임까지 있었다는 말씀을 지난 108회 臨時會에서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과연 관계공무원들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엄청난 한계를 느끼면서 나름대로 자조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行政副市長께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서울시 전반 책임자로서의 업무가 막중하고 바쁠 텐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된 동기가 바로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議會를 어떤 의미에서 너무 경시하고 우리 議會의 권위를 이처럼 훼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실증적 차원에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本委員은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서울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책임행정을 구현하는지 눈을 똑바로 뜬 감시자, 견제자이고 그리고 시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의회가 있음으로써 긴장하고 의회에 권위가 있음으로써 서울시민의 위상을 대리하는 우리 議

원들의 의정활동에 활력을 넣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부분이 엄청나게 좌절과 어떤 의미에서는 분노까지 느끼게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한분 한분 위원들은 적어도 인구에 비례하지 않고 市長과 마찬가지로 시민을 상대로 해서 서울시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을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면허증을 가진 견제자요,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장황하게 서두를 늘어 놓느냐, 질의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 서울特別市生命의나무1000만그루심기諮問委員會條例案이 상정되고서 環境管理室長과 일문일답을 하면서 바로 이러한 언어의 유희에 불과한 이 질의 응답이 과연 내가 서울시민의 대표성을 갖는 議員으로서 시민을 대할 때 과연 그 책무를 다하고 있는 이러한 자리인가 하는 그런 내 나름대로의 회한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단적으로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都室長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사석입니다.

홀홀 털어버리고 진지한 태도의 답변을 기대하고 회의록에 남는 질의는 하지 않기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떠한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환경관리 산하에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조경심사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는데 서울特別市生命의나무1000만그루심기諮問委員會條例案과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지금 都室長께서는 준비를 못해서 밑에 課長들이 자문해 주는 나름대로의 답변

으로 책임성 없이 議會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바로 어떤 부분이냐, 엄연히 조례안이 있는 조경심사위원회에 나무를 취급하는 전문자문위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조례안도 가지고 있고 한번 읽어 보세요. 그랬는데 조경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묻고 조경심사위원회의 구성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깐 일축하면서 그것은 조경심사위원회가 아니고 조경상위원회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강조를 하면서. 여기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임기응변식 그런 답변을 시민의 대표로서 계속 들어야 하느냐, 마찬가지로 副市長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그러한 議會를 향해서 책임지지 못하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市長이 바로 나와야죠. 여기서 떼어놓고 한분 한분 위원들이 다 천백만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市長은 집행하는 책임의 총수요, 우리는 시정을 감시 감독하는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議員인데 하잘 것 없는 답변이라고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바깥에서 살살살 웃으면서 로비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간다고 할 때 과연 이 의정활동을 계속 해야 할 것인가, 내가 과연 시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하는 심한 자조를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市長을 대리해서 行政1副市長께서는 시정의 최고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정말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회를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대한 명실상부한 소신과 신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副市長께서 답변하세요.

○行政1副市長 李弼坤;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은 시민의 대표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 고견을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저희 市 집행부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7월 이후에 의외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원인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저 나름대로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 제가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오해를 푸는 그런 가교역할을 좀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市 직원들이 그렇게 단기적으로, 방편적으로 얘기했다고 하면 그것은 앞으로 고쳐나가야 되고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金寬洙 委員; 잠깐만 덧붙여서, 지금 環境管理室 산하 조정심사위원회조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行政1副市長 李弼坤; 구체적으로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金寬洙 委員; 지금 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회조례안은 시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의 공약사업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조정심사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상정된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行政1副市長 李弼坤; 조정심사위원회 기능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제가 돌아가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면 통합하는 방법으로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寬洙 委員;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조경심사위원회 기능은 서울특별시조경상과 푸른마을상 수상자 심사, 2. 조경에 관한 기술자문,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이나 2에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회조례안이 파악할 것도 없어요. 제가 읽어드린 대로예요. 그렇다면 이 조례안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行政1副市長 李弼坤;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金寬洙 委員; 그러면 高建 市長의 1000만 그루 나무심기 공약을 나름대로 중점 부각시키고, 어떻게 하면 실무 공무원들이 시장에게 나름대로 점수를 따려고 하는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行政1副市長 李弼坤; 1000만그루 심기가 시정의 역점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강력한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1000만그루심기조례가 지금 제정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조정조례하고 같이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같이 검토가 안 되고 시책사업 위주로 검토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金寬洙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관계공무원들의 시장에게 아부성 정책으로 입안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분명히 조경심사위원회 기능을 제가 읽어드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이런 것을 냈다고 하는 것은 상급자에 대해서 아부성 정책이라는 거죠, 저희가 볼 때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

서 되겠어요? 제가 먼저 판단을 내려 죄송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장한테 잘 보이려고 점수 따기 위한 그런 안이에요.

○行政1副市長 李弼坤; 제 생각에는 1000만그루심기가 시정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조례의 명칭을 1000만그루로 하는 것은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요. 단, 그것을 검토할 때 조정조례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통합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寬洙 委員; 조정심사위원회조례안은 環境管理室 산하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조례안인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부시장님께서서는 전반적인 업무를 다 파악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 부분은 부시장님이 답변하셔야죠. 지금 실무자 입장의 우리 環境管理室長은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한 것이고, 우리 시장을 대리한 최고의 시정책임자로서의 부시장의 소신을 듣고자 하는데 왜 자꾸 環境管理室長이 답변하려고 해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부시장님께서 전체 업무를 관장하시다 보니까 조례 하나 하나에 대해서 전부 세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金寬洙 委員; 조정심사위원회 기능을 제가 읽어드렸고, 1000만그루심기 기능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한테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자세로 일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부시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인데 어떻게 실장님이 가로채서 자꾸 답변하시려고 해요? 제가 보는 소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行政1副市長 李弼坤; 기존의 조정사업이라는 것이 있긴 있었는데요.

민선2기가 출범이 되면서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1000만그루심기를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의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회가 발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책에 대한 새로운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조례를 만드는데 기존 조례하고의 연결관계를 저희들이 고려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金寬洙 委員; 제가 질문을 마칠까 하는데요. 여기 의회에서 공무원들이 언어의 유희, 언어의 장난 하지 맙시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표로서 진정 대접을 받고 공무원들이 시민을 무서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鍾來; 金判吉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判吉 委員; 金判吉 委員입니다.

시정업무에도 바쁘신데 부시장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것을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부시장님이 여기까지 오시게 되었는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 8월에 부시장님이 바로 이 자리에서 아까 얘기한 그러한 안으로 사과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고 다짐을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조례제정 없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서울시정이 얼마나 난맥상인가, 行政1副市長은

행정책임자입니다. 행정책임자가 모르는 사항이 진행이 될 때 이것은 각 국·실이 따로 노는 것 아닌가 이런 인상을 받았고, 또 의회를 얼마나 경시했으면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한 것도 반복해서 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아까 동료위원이 말한 대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애초에 개원할 당시에 서울시장과 의회의장은 똑같이 의회와 집행부는 똑같은 두 바퀴의 수레다, 그 수레가 나란히 잘 굴러가야 시정이 잘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레가 잘못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대표적인 이야기는 우리 金寬洙 委員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런 불행한 사태가 집행부와 의회간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또 이 자리는 시장님이 나오셔서 한 말씀 하셔야지 우리 위원들은 부책임자 말을 듣기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을 개인 인격 金判吉 이렇게 평하지 마시고 천백만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시장 이야기를 듣기를 원한다 하면 시장이 나오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설령 또 이런 일이 반복될 때는 시장이 나오셔서 이야기 하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도록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두고보겠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가 이런 현상이 유지된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가 견제를 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야지 이것은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간혹 市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위원들이 질의를 통해서 하는 것을 고급공무원들 국·실장이나 과장들이 나와서 그때 당시만 참고 들으면 된다, 돌아가면 너희들 언제 그런 말 했느냐, 너희들은 지껄여라, 우리는 우리 일을 한다

하면서 아무 것도 반영된 것이 없이 그대로 집행을 하고 하니 위원들 애써서 발언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의 이야기는 바로 시민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귀 기울여서 듣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정신자세를 확립해야만 공무원도 시민을 위한 공무원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鍾來; 답변 안 들어도 말씀하신 것으로 끝내시겠습니까?

○金判吉 委員; 네.

○委員長 金鍾來; 朴來雨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來雨 委員; 朴來雨 委員입니다.

李弼坤 行政1副市長님, 고생 많습니다. 1000만그루심기자 문위원회를 세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行政1副市長 李弼坤; 그렇습니다.

○朴來雨 委員; 위원장님이 行政1副市長으로 되어 있는데 직접 회의를 주재하셨습니까?

○行政1副市長 李弼坤; 그렇습니다.

○朴來雨 委員; 세 차례 하시면서 조례안을 한 번도 안 읽어 보셨습니까?

○行政1副市長 李弼坤; 글썄, 첫번째 할 때 제가 그것을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朴來雨 委員; 본래 유감을 표시했는데 자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만 세 차례 할 때 담당공무원한테 물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行政1副市長 李弼坤; 당연히 그랬어야 되는데 제 불찰입니

다.

○朴來雨 委員; 1000만그루나무심기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위원회 위원장이시니까 1000만그루심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 실장님이 알려주는데 2,200억원입니다. 민간이 800억원이고 예산이 1,40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조례안도 통과 않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세 차례 다 하셨습니까?

○行政1副市長 李弼坤; 네, 그렇습니다.

○朴來雨 委員;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수당도 지급했습니다.

그 수당도 예산에 편성된 수당이 아니고, 그렇죠?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朴來雨 委員; 조례안도 없이 편성이 되었어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朴來雨 委員; 그렇죠. 그러니까 전년도에 수당을 지급한 것은 편성도 되지 않은 예산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부시장님, 이것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서두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유감도 표시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 차례나 주관하셨는데 한 번쯤 물어보셔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行政1副市長 李弼坤; 죄송합니다.

○朴來雨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鍾來; 더 질의하실 위원, 金在實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在實 委員; 金在實 委員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은 1000만그루심기자문위원회가 우리 의회에서 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씩이나 회의가 열렸다, 그것도 처음이 아니고 저번에 우리가 산업진흥대책위원회가 그런 식으로 해서 구구절절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열렸다는 데 대해서 정말 입을 열고 다물 수가 없었고, 오늘도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할 말이 없습니다.

더구나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사과를 하시고 하니까지도 대체 우리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번에 두 번으로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걱정돼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만 어차피 일은 이렇게 되었고 앞으로가 문제인데, 우리 金判吉 委員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시다만 사실은 오늘 시장출석을 요구했습시다만 부시장이 나오셨는데 시장출석 요구를 하면서도 부시장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장을 출석할 권한이 있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시장이 나와야 되는가 하는 마음의 갈등과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는 안 그러겠지만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이 다시 한 번 또 재발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시장이 출석해 달라, 그것을 약속하실 수 있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1副市長 李弼坤;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백배 사죄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다시는 이런 약속위반 사태가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좀더 챙기는데, 챙기는 방법은 우선 이미 시행을 했습시다만 각 실·국에다 이같은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재점검을 다시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새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런 것이

있을 때 실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市에서 규칙을 할 때 반드시 거기다 명기를 해서 시행은 議會의 의결 이후에, 아니면 아주 급한 상황의 경우에는 議會에 사전에 양해를 얻고 나서 집행하는 그런 원칙을 세워서 기준을 하나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많이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在實 委員; 本委員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피해 가시는 데 전에 金興植 委員님께서 우리 副市長께서 사과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 번 읽었습니다. 아주 구구절절 사과를 하셨습니다. 오늘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궁금했습니다. 참 보기에 안타깝습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을 또다시 보고 싶지 않다는 얘데요.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재발한다, 물론 제도적인 장치를 하시겠지만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室長께서는 市長出席을 못 시키시겠지만 副市長께서는 시키시리라고 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와 똑같은 잘못이 반복될 때는 반드시 市長님을 출석시키겠는가 그것을 약속을 해 달라는 겁니다.

○行政1副市長 李弼坤; 市長出席을 제가 약속을, 출석하시도록 제가 건의는 드릴 수 있습니다.

○金在實 委員; 아니, 副市長이 서울시에 몇 명입니까?

○行政1副市長 李弼坤; 세 명입니다.

○金在實 委員; 세 명인데 市長 밑에 副市長이 세 명입니다. 가장 가까워서 보필하고 가장 말을 들어줄 副市長인데 副市長이 얘기하는데 市長이 안 듣습니까? 당연히 법적으로도 議會에서 부르면 나오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양보했는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를 전제해서 하

는 얘기인데.

○行政1副市長 李弼坤; 제가 할 수 있는 건의까지는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점의 市長의 스케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출석관계는 제가 확답은 드릴 수 없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在實 委員; 그런 것은요, 저희도 상황에 따라서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지금 室長님께서 하신 말씀과 지금 똑같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변함없이 똑같아요. 똑같은 문구를 사용하고 똑같은 어투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李弼坤 우리 副市長께서는 공무원을 안해 보셨는데 상당히 그런 타성에 많이 젖어 있는 것 같은 감을 느끼는데요, 답변을 들으면서. 앞으로 이런 똑같은 상황이 절대로 안 이루어지게 물론 하시겠죠?

○行政1副市長 李弼坤; 네,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金在實 委員; 하시겠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천에 하나도 아니고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났을 경우에 당연히 출석해야 되는 市長이 나와야 됴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는데 세번째도 그것마저도 여기서도 약속을 못한다 하는 것은 副市長께서 주관이 없으신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議會를 경시하는 것인지, 지금까지 했던 사과가 형식에 불과한 것인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면서 本委員은 잘못을 했건 안했건 사과를 했건 안했건 간에 우리 議會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이나 다름없다, 물론 이런 일이 나오는 것이 사과하는 것이 귀찮으니까 싫어서 안 나오게는 하겠지만 우리 議會를 대하는 태도는 사고는 똑같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行政1副市長 李弼坤; 議會 경시문제는 그 동안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인상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다루겠고요. 市長 출석문제는 제가 委員님 말씀 포함해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金在實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議會에서 똑같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상임위입니다, 딱 상임위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李弼坤 副市長께서는 나오시지 마세요. 아셨죠?

○行政1副市長 李弼坤; 알겠습니다.

○金在實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鍾來; 李成浩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成浩 委員; 李成浩 委員입니다.

우리 副市長님이 우리 위원회에 세번째 출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特別市生命의나무1000만그루심기諮問委員會條例案 때문에 나오셨는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요, 이것이 市長님한테 보고는 된 것입니까, 출석요구 사실이요?

○行政1副市長 李弼坤; 네.

○李成浩 委員; 그래서 상의가 되어서 副市長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까?

○行政1副市長 李弼坤; 네, 그렇습니다.

○李成浩 委員; 市長님 일정이 뭐가 있기 때문에 못 오시는 거예요?

○行政1副市長 李弼坤; 스케줄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스케줄을 죽 보기는 봤는데요. 구체적인 항목이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 委員長 金鍾來; 아니, 行政1副市長님, 지금 대신으로 나왔다고 그랬죠? 市長님한테 건의를 했다고 그랬죠?
- 行政1副市長 李弼坤; 네.
- 委員長 金鍾來; 그 말씀 알고 계시죠?
- 行政1副市長 李弼坤; 네.
- 委員長 金鍾來; 그런데 市長님 일정을 오늘 이 시간에도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떤 일정에서 오늘 대신해서 나오신 것 그것도 모르고 계시요?
- 李成浩 委員; 室長님도 모르시고 副市長님도 모르시면 어떻게 대신 나오시면서 市長님 일정도 모르시고, 室長님도 모르시고 副市長님도 모르시고 課長도 모르시고.....
- 行政1副市長 李弼坤; 교시협의회 신임회장단 면담 스케줄이 오래 전에 잡힌 것 같습니다.
- 委員長 金鍾來; 어디요?
- 行政1副市長 李弼坤; 교시협의회.
- 委員長 金鍾來; 그 얘기는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비서실에 일정이 있습니다.
- 委員長 金鍾來;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오늘 이탈리아 대사하고 면담관계로 일정을.....
-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이탈리아 대사 예방은 내일이고요.
- 委員長 金鍾來; 그러면 비서실에서 우리 위원회에 얘기한 것은 거짓말이라 이 말입니까? 비서실 얘기는 이탈리아 대사 면담 때문에 못 나온다고 대신 行政1副市長을 보낸다고 했는데.
- 李松竹 委員; 李成浩 委員님 질문은 副市長님이 市長님께 보고를 했느냐는 질문이잖아요.
- 委員長 金鍾來; 아니, 李成浩 委員께서 오늘 市長 일정이

뭐냐고 물어 보니까 대답을 못하시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金鎬一 委員; 그러면 확실한 대답을 알아서 나올 때까지 정회합시다.

답변도 못하는데.....

○委員長 金鍾來; 李成浩 委員 계속해서 하세요.

○李成浩 委員; 대신 나오시면서 市長님이 왜 못 나오시는지에 대해서도 확인 안하시고 나오셨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議會에 가서 대신 나오게 된 경위를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든 議會에서 시장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市長님 일정이 왜 못 나오시는지에 대해서도 확인도 안하시고 오셔서 이러저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사과를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委員들이나 제3자가 보기에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리고 副市長님도 모르실 뿐만 아니라 室長, 課長, 관계자들도 정확히 모르셔서 우왕좌왕 하시는데.....

○行政1副市長 李弼坤; 아니, 스케줄은 제가 오늘 하루 스케줄을 죽 봤는데 이 시간에 뭐 하시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교시협의회 신임회장단 예방으로 자료가 되어 있어서 늦게 말씀드린 겁니다.

○李成浩 委員; 교수협의회요?

○行政1副市長 李弼坤; 교시협의회.

○李成浩 委員; 교시협의회가 뭐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서울시와 서울시내의 각 교회간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의 회장 목사님, 부회장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새로 뽑히셨나봐요. 그래서 市長님께 오래 전에 약속이 되어서 교시협의회 현안사항에 대해서 市長님을

뵙고 논의를 하시겠다고 해서 오늘 간담회 겸 인사차 예방하는 것이 있습니다.

○李成浩 委員; 그것이 몇 시로 되어 있습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4시경에 하는 것 같습니다.

○李成浩 委員; 서류 좀 보여 주시겠어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여기는 없습니다.

○李成浩 委員; 없어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李成浩 委員; 그러면 뭘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정표 보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副市長께서?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비서실에 연락을 해 보라고 하니까 교시협의회.....

○李成浩 委員; 아니, 비서실에 연락하러 나갔다 들어온 사람이 없는데.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課長이 나한테 얘기했습니다.

○李成浩 委員; 처음에는 副市長님이 외부행사 말씀하시고.....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副市長님이 스케줄 하나 하나를 다 기억 못하시고 그냥.....

○李成浩 委員; 아니, 외부행사인지 내부행사인지 정도야 구체적인 일정으로라도 감은 있겠죠.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市長님 대신해서 오시느라고 스케줄을 다 읽어 보시지 않으시고.....

○李成浩 委員; 그리고 말씀하신 것도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 지금 없다고 그러시면 지금 이 분위기에서 그 말에 대한 신뢰성이 얼마나 있느냐 말이죠.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것은 市長님께서 못 나오시고 副市

長님이 대신 나오신다고 해서 어제 委員會에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副市長님께서 일정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오신 것 같습니다.

○李成浩 委員; 일단 그 점은 그 정도로 얘기하고요.

제가 왜 확인했느냐 하면요, 지난번 副市長님 두번째 출석시에 그 당시에는 여의도공원 매점 등 편의시설에 관한 수의계약에 관한 건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그때 市長을 대신해서 오셨고 그 뒤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시장님을 한번 뵙고 말씀 나누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市長님은 市議會에서 그 문제로 출석요구한 사실조차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서실하고 서로 얘기해서 그냥 그렇게 처리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行政1副市長 李弼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뵙고 스케줄이 있어서 뵙고 나가서 저희로서는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해서 그때 정책회의결과를 거쳐봐야 알겠더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고 아마 市長께서 착각을 하셨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李成浩 委員; 제가 재차 물어 보았어요. 그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것도 아니고 적어도 議會에서 市長 자신을 출석요구한 건이라고 한다면 내용이 어떻더라는 것은 출석요구 당시 시간에 맞추어서 나오시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셨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것 너무 심각한 상태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副市長님한테 市長 일정이 어떤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行政1副市長 李弼坤; 그것은 아마 市長님께서 잠깐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李成浩 委員;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설치조례는 비단 우리 위원회 5대 의회에서 두 번째 얘기입니다만 4대 의회 때도 수없이 지적된 사항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질의도 있었고 당시에 趙淳 市長인가 답변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장의 위치에 계시는데 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브리핑을 받으실 것 아닙니까?

○行政1副市長 李弼坤; 그렇습니다.

○李成浩 委員; 그런데 설치근거에 대한 확인도 안하시고 회의를 운영하고 그런다는 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서울시에서는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 그래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行政1副市長 李弼坤; 그것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것이고요.

○李成浩 委員;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는 議會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자세가 되어 있고 당적도 같은 당 출신이 절대 다수의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정이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사전적인 절차도 없이 몇 차례 회의가 운영되고 또 그 전에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이 말씀하시며 협약까지 하신다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약속했던 사항인데 정작 위원회 운영하면서는 확인도 안하신다는 말씀이죠.

議會 오실 때 느낌과 다짐과 실제로 本廳 가서 업무 보실 때 판단은 전혀 연결이 안 된다는 느낌밖에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行政1副市長 李弼坤;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제가 노력을 덜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을 반성해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한 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새로 제정될 때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얘기입니다.

○李成浩 委員; 副市長님께서는 그 동안 민간기업에서 즉 경영에 참여하시다가 행정에 처음으로 오신 것이죠?

○行政1副市長 李弼坤; 네, 그렇습니다.

○李成浩 委員; 그 동안의 관행, 이것 참 무섭습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수십년 동안 같이 엮히고 설킨 관계기 때문에 부시장님으로서 부시장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조직장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직장악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지로 걸돌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면 그것은 부시장님 개인으로서나 우리 市 전체로서나 누구에게도 소망스럽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는 부시장님한테 특별한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새로운 경력을 가진 부시장님이 오셔서 서울시에 뭔가 변화의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의 여론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리고 車東得 交通管理室長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가고요. 기성의 조직에 의해서 전혀 제 역할을 못하고 기존의 관성과 조직에 이끌려갈 뿐 제 역할도 못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평가

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소망스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임명을 받고 부시장에 취임하실 때의 각오로 정말 매일 매일 다짐하시면서 챙기지 않으시면 오늘과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여의도공원 매점과 관련하여 부시장님 뵈 자리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정책회의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게 된 과정과 동기가 서울시가 해서는 안 될 약속들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무효로 돌리고, 시대에 부응하고 또 우리 위원들의 절대적인 요구에 맞추어서 공개입찰로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셨는데 부시장님은 정책회의 과정에서 전혀 그런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똑같은 기존의 타성에 벌써 들어가버렸는가 하는 실망을 개인적으로 가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회의자료도 있습니다만 약속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상식이죠. 구두약속이 되었든 서면약속이 되었든 계약서를 썼든.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이 강압에 의한 약속이었느냐, 또는 일정한 사기를 전제한 약속이었느냐 등등에 관한 문제인데 누가 보더라도 민원에 시달려서 한 억지약속이라는 측면이 강하고요.

또 이 자리에서 실장님과 질의답변을 했습니다만 어떤 사람도 도저히 그 민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부시장님도 그 점 때문에 다시 수의계약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묵인하신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그 약속이 강압에 의한 것이나, 여러 가지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한 약속일 경우에는 계약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된 것이라도 소송을 해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책회의 자료에서는 약속도 법률적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유발 가능성이 있고 패소할 가능성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재판을 할 때도 그것이 강압에 의한 것이었느냐, 순수한 자의에 의한 것이었느냐를 법률적으로 판사가 판단할 텐데 우리 실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자의적이었다는 것을 주장할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패소한다는 얘기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우리 부시장님이나 정책회의에 참여하는 고급공무원들은 그 정도 상식과 판단을 하고 계시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주무국장 실장의 의지가 강하면 따라주는 것이 관례고, 옳든 그르든 판단은 유보합니다. 중요한 조례에 관한 것도 그렇고, 어떤 하나의 기획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고급공무원들의 관행입니다. 자신의 판단은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직접적인 소관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주무 국·실장의 판단과 의지를 그대로 묵인하는 것이 서울시의 관행입니다. 지금 부시장님도 똑같은 관행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지적드린 것입니다.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行政1副市長 李弼坤; 제가 여기 나와서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 지난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위원회의 전

체 의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똑같은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제 기본 정책회의 결정사항을 떠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 市가 주민들한테 약속한 것은 아주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한 지켜주는 것이 市로서 할 일이 아니냐,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순전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의 의사 관철은 이번에 하면서도 결국 공개경쟁에 의해서 수익을 많이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기 때문에 방법은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변호사가 선정이 되었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소송사건으로 갔을 때는 거의 패소가 분명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여의도공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서울시가 관리하는 것은 모두 공개경쟁입찰로 갈 것입니다. 가는 과정에서 과거의 약속이나 어떤 제한적인 요소에 의해서 과도기간에 그런 불가피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그렇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成浩 委員; 그런데 市가 개인이 되었든 단체가 되었든 약속한 사항은 지키는 것이 옳죠.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속이 자의에 의한 것이었느냐, 강압에 의한 것이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의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관계공무원들을 문책해야 될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데 질의응답을 해 봤지만 자의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민원에 시달려서, 당시 여러 가지 여의도공

원 조성하면서 그 사람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는 신문보도를 통해서든 방송을 통해서든 익히 아십니다. 또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나온 약속입니다.

그런 약속도 어쨌든 약속이다,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 그렇다면 서울시와 무슨 일을 할 때 온갖 협박, 공갈 다 해서 약속 받아내면 그것으로 유효한 것이다 하는 것이 성립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서울시와 대시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두약속도 약속이니까 어쨌든 약속만 받아내면 지켜야 되는 것으로 되는 것,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 없이, 또 의회에서 그만한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은 저는 큰 문제라고 보고요.

두번째로 방법상 수익을 좀더 많이 올리는 문제로 저희들이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 수익도 당연히 올라가지만 문제는 시대의 흐름이고 원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그것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익계약을 공개경쟁입찰로 돌리라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고, 그 부산물로 수익에 관한 것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도 거꾸로 오해하고 계신 것 같고요.

○行政1副市長 李弼坤; 투명성은 저도 표현을 안했다 뿐이지 맞습니다.

○李成浩 委員; 제가 지나간 것 가지고 부시장님한테 분풀이 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로 저

희들의 충정과 누가 봐도 당연한 말씀, 그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 모두가 주장했던,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시장출석까지 요구하게 된, 시장출석 요구를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시장 답변 가지고 부족해서 또 다시 재출석요구를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시장직인까지 찍어서 이렇게 위원 뜻대로 하겠다고 해서 시장님께 보고해서 가져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제 판단입니다만 시장님 착각이라고 부시장님 말씀하십니다만 環境管理室에서 직인 찍어서 온 것입니다, 위원님 뜻 반영되도록 정책회의에서 노력하겠다고 한 약속을. 그런 식으로 처리해 나가는 이런 관행들에 대해서 저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뭔가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저로서도 요즘 정말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시간낭비하고 있다는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갈등도 많습니다. 뭔가 노력한 만큼의 변화와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부시장님께서서는 그 동안에 다른 경력을 가지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변화의 바람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임기 채우고 가실 것이라면 누구에게도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왜 계속 합니까?

○行政1副市長 李弼坤; 제 스스로 한번 전체적인 반성기간을 갖겠습니다.

○李成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鍾來; 金鎬一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鎬一 委員; 金鎬一 委員입니다.

李弼坤 行政1副市長께서는 金寬洙 委員의 질의에 답변이 모호한 점이 있었습니다. 서울特別市生命의나무1000만그루심기諮問委員會條例案과 造景審査委員會條例案이 중복이 되는 것 아니냐, 겹치는 문제도 있다고 조례 일부를 낭독도 해 드렸는데 그때 답할 때 제가 그것을 챙겨보지 않고 해서 앞으로 보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行政1副市長 李弼坤; 그렇습니다.

○金鎬一 委員; 오늘 중요한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서 확실하게 알아봐서 다시 이 조례안을 올려야지 오늘 이대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行政1副市長 李弼坤; 사실은 염치없는 얘기입니다만 1000만그루심기는 계속사업으로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통과시켜 주시면 조정조례를 저희들이 손을 봐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金鎬一 委員; 제가 金寬洙 委員의 질의 서두에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타이밍을 놓쳤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한가지라도 제대로 듣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답변한 그대로 한다면 오늘 이 조례안은 절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같이 가서 서로 비교검토를 해야 되니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行政1副市長 李弼坤; 네, 그렇습니다.

○金鎬一 委員; 그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서울特別市生命의나무1000만그루심기諮問委員會條例案 이

것이 두번째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시장님의 출석요구안도 거부한 채 李弼坤 行政1副市長이 우리 위원회에 조례 때문에 두 번씩이나 참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는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만, 위원회 운영시한이 2002년 6월 말까지입니다.

○行政1副市長 李弼坤; 그렇습니다.

○金鎬一 委員; 그러니까 高建 市長의 임기하고 같습니다. 또한 저희 위원들하고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2,200억 원에 이르며 더구나 高建 市長의 선거공약이며 재임기간 역점사업이기도 합니다. 항상 시장이 바뀌게 되면 으레 공약사업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高建 市長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예산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6·4선거에서 당선되었으니까 97년 예산에 금년도 자문위원회조례에 들어가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어려운 시기에 市長에 당선되어 1000만그루의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과연 1000만그루의 나무심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며 李弼坤 行政1副市長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끼셨는지 답을 해 주시고요. 제가 다른 질의를 다 끝마친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李弼坤 副市長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8년도 8월 4일 실업대책위원회조례안 제정 때도 저희 앞에 나와서 첫번째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는 環境管理室 소관은 아니었습니다만 本委員은 副市長께서 사과발언을 하시고 난 후에 관계공무원을 질책을 했습니다.

니다.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좀 보필해 드리라고.

그런데 이제는 李弼坤 行政1副市長께서 보필만 받을 것이 아니라 행정을 잘 챙기는 어진, 그리고 과감하게 개혁을 실천할 수 있고 또 우리 委員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를 직시할 수 있는, 또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行政1副市長이 되겠다고 하는 의지는 어떠한지 함께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로 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사과 발언해 주시지 않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또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경심사위원회조례안과 서울特別市生命의나무1000만그루심기諮問委員會條例案을 접목시킨다는 얘기는 본인 의사가 어떤지를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鍾來; 말씀해 주십시오.

○行政1副市長 李弼坤; 첫번째 질문하신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심기 사업은 아까 委員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市長 공약사업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그 동안 경제발전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녹지가 나무가 주위에는 많은데 도심지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저희 市의 정책결정 과정을 거쳐서 市의 중요한 프로젝트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서울시의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녹지나 나무의 식수는 역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의 정책사업으로 채택되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번째 저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李成浩 委員님 말씀 듣고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

었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온 이유는 제 나름대로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에서 왔고, 그 역할이라는 것은 제가 행정이나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 경험도 없고 하지만 단 하나 기업에서 여러 가지 기업경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서울시정하고 접목되는 그런 데서 역할을 찾고 있는데, 지금까지 평가는 큰 역할이 없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상당히 깊이 생각해야 하는 그런 결과고요. 그래서 지난 기간을 제가 반성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있는 동안 委員님 말씀대로 제 나름대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잘못된 점을 반성을 해서 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정 문제가 있다고 하면 市에서 제 역할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가서 의논을 드려서 제 거취를 결정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鎬一 委員; 답변 다 하셨어요?

○行政1副市長 李弼坤; 그리고 조경심사조례안하고 서울特別市生命의나무1000만그루심기諮問委員會條例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特別市生命의나무1000만그루심기諮問委員會條例案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계속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조경조례안은 제가 아까 내용을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중복되는 분야, 이런 분야는 앞으로 그 조례안을 수정해서 委員님들한테 상의를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鎬一 委員; 그러니까 우선 서울特別市生命의나무1000만그루심기諮問委員會條例案이 더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죠?

○行政1副市長 李弼坤; 네, 그렇습니다.

○金鎬一 委員; 그렇다면 저는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여쭙본 사항은 1000만그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푸른 서울을 가꾸겠다 그런 의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은 안합니다만 좀 생각을 해 볼 때 1000만그루라는 나무가 너무 많다, 한 500만그루로 줄일 생각은 없느냐, 그런 것까지도 한번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市長께서 1000만그루 하니까 무조건 1000만 그루에다 목표를 하지 말고 1000만그루보다는 아직은 IMF라는 얘기를 안 쓰려고 해서 제가 그것을 피했습니다만 이런 시기에 1000만그루보다는 500만그루, 지금 각 지역마다 구마다 학교마다 나무 심으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소리 많이 합니다. 너무 일시에 많이 심다 보니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회의를 하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서울은 영원할 것인데 꼭 4년 동안에 1000만그루를 심어야 되겠느냐, 아니면 700만 그루, 500만그루, 400만그루를 심어도 충분히 되겠다고 하면 안 심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李弼坤 行政1副市長이 할 일이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金鍾來; 金基星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星 委員; 金基星 委員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同僚委員들의 좋으신 고견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서울特別市生命의나무1000만그루심기諮問委員會條例案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비애를 느낍니다.

원인은 물론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시행하는 것도 물론 잘못이지만 조금 전에 同僚委員이 지적했듯이 지금 가뜩이나 어렵고 서울시 전체 예산을 줄여 가면서까지 하는 이러한 시점에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2,200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서울시에 나무 심는데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비애를 느낍니다.

따라서 本委員이 李弼坤 副市長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서울특별시에서 1000만 그루의 나무를 꼭 채워야 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서울시내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1000만 그루가 아니라 수천만 그루의 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나무를 심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서울특별시 環境管理室에서 나무를 심는데 역점만 둘 것이 아니라 관리를 현재 심어져 있는 가로수라든지 공원의 녹지의 나무라든지 관리를 어떻게 해서 한 차원 높여서 더 푸르게 만들겠다는 계획은 없고 그저 없는 살림에 돈을 2,200억씩이나 투자해서 이것을 가지고 계획만 세운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따라서 環境管理室長님께서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 이 자체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지속해 나갈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1000만그루 나무심기에는 그러한 정책이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이라든지 나무심기 정책이라든지 이런 국가사업의 큰 프로젝트 정책은 심도있는 연구 검토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단시일 내에 만들

어진 졸작이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싶은 이러한 심정입니다.

따라서 이 정책을 누가 처음에 계획을 했으며 그 정책에 관여한 사람은 누구 누구인지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1000만그루 나무심기 정책에 관여했던 자료도 있을 겁니다. 그 자료가 있으시다면 그것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조금 전에 同僚委員이 지적한 대로 굳이 2000년 6월까지 반드시 1000만그루를 꼭 심어야만 되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각 區나 洞을 다녀보면 시민들의 1000만그루 나무심기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결여되어 있습니다. 심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어디서 나무를 갖다 심는지도 모르고요. 이런 홍보도 제대로 안 되었는데 예산은 방대하고 나무는 1000만그루를 심어야 되겠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각 區廳, 洞事務所까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었습니다. 홍보는 副市長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인지 그것도 좀 밝혀주시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반드시 1000만 그루가 아니고 同僚委員 말씀대로 500만그루라도 현실정에 맞게끔, 그리고 한그루 한그루를 심는데도 정성을 들여서 정말 제대로 심을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다시 심도있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行政1副市長 李弼坤; 1000만그루라는 타이틀이 나오게 된 동기는 4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나무를 심자, 그런데 심는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연도별로 따져 보니까 한 1000만그루로 목표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1000만그루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실제로 1000만  
주에 맞춘다든지 절대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의 상징성으  
로서 1000만그루 심기로 정해졌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또 저희들이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1000만그루가 기본은 되  
지만 그보다 좀 적어질 수도 있고 좀 많아질 수도 있고 여건  
에 따라서 입지에 따라서 그런 개념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다음은 環境管理室長이 답변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鍾來;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답변을 하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委員長 金鍾來; 말씀하세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  
리가 중요하지 않느냐, 아주 적절한 말씀이시고 또 이런 지적  
을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나무 심는 부서, 또 관리하는 부  
서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나름대로 자치구, 또 공원녹지사  
업소 각 공원별로 이렇게 관리를 해 오고 있고, 또 학교나 각  
종 단체, 기업체에 지역별로 분담을 시켜서 관리체계를 갖추  
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좀더 발전시켜서 녹지관리실명제  
라 할까 이런 방안을 도입을 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나무는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 어느 기업체 또 거기에서도 어느 부  
서 이것을 명시해서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좀더 종합적이고 깊이있게 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금년에 委員長께서 지난번 예  
산에 도와 주셔서 수목센서스를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

서 전체적인 수목을 조사를 하고 그 성장상태와 또 보전대책을 전부 파악을 해서 과학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심는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의무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건축준공이 끝나고 나면 나무가 관리가 안 되는 그런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과거에 준공 이후에 나무가 없어지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시일 내에 너무 졸속으로 이런 정책이 세워진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까 副市長님께서 1000만그루에 대한 의미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1000만그루라는 사업이 규모면이나 집중적으로 심겠다는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市長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과거부터 산림에, 또 도시환경림이라고 해서 나무를 심고 공원에도 나무를 심고 이런 나무심는 사업은 계속되어 온 사업입니다. 계속되어 온 사업인데 이것을 좀더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심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심기 위해서 우리가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공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녹지대라든가 전 분야에 걸쳐서 자치구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나무를 어느 정도 심을 수 있을 것이냐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개 1000만그루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이것이 모두 키가 큰 그런 나무들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키 큰 나무는 약 3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300만그루이고, 나머지는 전부 관목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향나무 같은 이런 종류들이기 때문에

1000만그루라고 생각할 때 심을 장소가 과연 있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책에 관여한 인사,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실 그 당시에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안을 제안하셨는지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金基星 委員; 金基星 委員입니다. 끝에 답변하신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그런 분들은 모르신다고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 않고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1000만그루심기사업계획을 검토를 해 보라는 지시말씀이 계셔서 저희 실무진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검토를 했습니다.

○金基星 委員; 물론 거기에는 이견은 없습니다. 단,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環境管理室長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큰 나무가 300만그루고 관목이 700만그루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관목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한 강변에만 심어도 1,000만그루는 금방 심을 수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관목으로 따진다면.

본위원회는 거기에 첨가로 말씀드린다면 사실 올림픽대로나 강북 쪽으로 봤을 때는 관목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큰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야 서울의 도심지가 굉장히 균형있게 발전되면서 서울의 푸르름을 느끼는데, 사실 다녀보시면 알지만 관목만 심었다가 한번 수해가 나면 휩쓸려 버립니다.

이런 것도 본위원회의 지적에 불과하겠습시다만 環境管理室에서 거기에 대해 각별하게 유의하셔서 나무 선정도 구에 따

라, 또 하천에 따라 이것을 분별해서 제대로 심을 수 있는 그러한 심도있는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유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鍾來;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行政1副市長님께서도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2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2월 23일과 오늘의 의견개진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生命의나무1000만그루심기諮問委員會條例案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서 기능과 그 다음에 조정심사위원회에서의 기능이 유사하므로 굳이 꼭 生命의나무1000만그루심기諮問委員會가 필요하느냐 이런 내용과, 그 다음에 이 조례안이 있기 전에도 1000만그루심기에 대해서는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7時 24分 會議中止)

(17時 34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鍾來;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해 본 결과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金在實 委員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在實 委員; 金在實 委員입니다.

서울特別市生命의나무1000만그루심기諮問委員會條例案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이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2,200억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고, 그런 점에서 이것은 시급히 위원회조례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집약되어서 오늘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5조 위원의 임기 중에서 제1항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했을 경우에 공무원이면서도 서울시 직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산림청 직원이라든지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제5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을 적용하면 안 된다 싶어서 “공무원인” 이것을 삭제하고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촉된”으로 바꾸어서 제5조제1항을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이렇게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鍾來; 金在實 委員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金在實 委員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金在實 委員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金在實 委員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特別市生命의나무1000만그루심기諮問委員會條例案은 金在實 委員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特別市生命의나무1000만그루심기諮問委員會條例案

(뒤에 실음)

.....

○李成浩 委員; 위원장님, 아까 우리 간담회때 실장님이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鍾來; 실장님,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조정심사위원회 규칙에 관한 건이 문제가 되었죠?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같은 조레인 것 같으면 아마 비교검토가 용이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심사위원회는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정상, 푸른마을상을 시상하는데 그 대상선정을 하기 위한 심사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정기술심의가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시장이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기술부분

에 관해서 조경기술과 관련된 사항하고 1000만그루 나무심기의 기술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중복된 부분이 있는 시행규칙은 조정을 해서 상치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는 나중에 보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2. 1999年度環境管理室業務報告(環境保全·公園綠地分野)

(17時 38分)

○委員長 金鍾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年度 環境管理室 소관 環境保全 및 公園綠地分野 業務報告의 건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먼저, 環境管理室 소관사무를 施設管理公團에 위탁관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대공원과 여미지식물원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 環境管理室 업무를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어린이대공원과 여미지식물원 운영 예산을 環境管理室에서 지원하고 있어 앞으로 예산심사 및 위탁운영 문제 등에 참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建設委員會 소관사무이나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千載敬 어린이대공원 소장 나오셔서 어린이대공원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대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어린이대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報告)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 業務報告  
(뒤에 실음)

.....  
이상 어린이대공원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鍾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許南大 여미지식물원관리소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濟州觀光植物園如美地管理事業所長 許南大; 濟州觀光植物園如美地管理事業所長 許南大입니다. 여미지식물원에 대한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報告)

濟州觀光植物園如美地管理事業所 業務報告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鍾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께서는 千載敬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과 許南大 如美地植物園管理事業所長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判吉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判吉 委員; 金判吉 委員입니다.

어린이대공원이 몇 년도에 관리를 시작했습니까?

○어린이대공원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저희 어린이대공원은 73년도에 개원되어서 施設管理公團에서는 86년도 1월 1일자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金判吉 委員; 그러면 서울市長이 다시 관리권을 회수한다는 결재가 났죠?

○어린이대공원管理事業所長 千載敬; 그것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金判吉 委員;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린이대공원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는 것으로 이번 구조조정때 결정이 되었습니다.

○金判吉 委員; 그리고 계약을 다시 했어요?

○어린이대공원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저희들은 서울시로부터 위탁대행을 받아서 해마다 관리를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서울시에서 회수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金判吉 委員; 최근에 회수한다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어린이대공원管理事業所長 千載敬; 그렇게 나오다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金判吉 委員; 안하는 쪽으로요?

○어린이대공원管理事業所長 千載敬; 네.

○金判吉 委員; 그러면 86년이라고 했죠?

○어린이대공원管理事業所長 千載敬; 네.

○金判吉 委員; 86년도에 인수할 당시에는 손익이 어떻게 나

왔습니까?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그 당시는 86년도 초창기에는 한 100%가 되었습니다. 100%가 되었는데 그 후에 여러 가지 인건비 증가분이라든가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고 나서 어린이에 대해서 무료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서울시에서 할 때는 어린이도 입장료를 받았습니  
다만 저희 施設管理公團에서 인수한 이후부터는 무료입장을  
시킴으로 해서 유료와 무료의 비율은 한 반 이상이 무료입  
니다.

그래서 시민봉사차원에서 어린이대공원의 취지에 맞게끔  
무료로 해 줌으로 해서 자립도는 조금 떨어졌습시다만 96년  
도부터 자립도가 다시 향상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金判吉 委員; 현재 자립도가 몇 %예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저희들이 한 70% 정도  
됩니다.

○金判吉 委員; 그러면 공원으로서는 70% 정도면 대성공이  
네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조  
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탁료가 저희들이 연간  
10억을 받던 것이 35억으로 한 25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비를 제외하면 저희들 자립도가 100%가 되겠습  
니다. 저희들 계약이 3년간 되어 있기 때문에 3년간 계속해  
서 위탁료는 35억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判吉 委員; 그러면 구조조정을 어떻게 했어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구조조정은 저희들 어린  
이대공원에 관한 사항은 인원이 한 13명 정도, 지금 현재 95  
명이니까 한 14~15% 줄어드는 것으로 지금, 아직 확정적으

로 서울시에서 결정이 나서 공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金判吉 委員; 구조조정안이 서울시로 나갈 때 무슨 직이 몇 명, 무슨 직이 몇 명, 그렇게 나가서 확실히 몇 %라고 안 나왔어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그 점도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13명 정도가 줄어 들었는데.....

○金判吉 委員; 13명이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네.

○金判吉 委員; 그러니까 지금 99명에서 13명이 줄어들었다 그 말이죠?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네, 14~15% 정도 줄어든 거죠.

○金判吉 委員; 그러면 총인원이 몇 명이에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저희들이 총인원 99명에서.....

○金判吉 委員; 아니, 현재 일반직, 업무직 말고 고용직, 임시직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저희들이 99명 외에 고용직 3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해서 고용직을 3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判吉 委員; 37명이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네.

○金判吉 委員; 여기 99명 외에?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네.

○金判吉 委員; 임시직 같은 것은 없고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임시직이 아까 제가 말

씀드린 대로 37명이 임시직이 있습니다.

○金判吉 委員; 그러면 전부가 현재 관리공단 직원들이죠?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그렇습니다.

○金判吉 委員; 구조조정에서 14~15%를 했다?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네.

○金判吉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鍾來;朴來雨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來雨 委員; 所長님,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서울施設管理公團으로 되어 있습니다.

○朴來雨 委員; 86년도부터 위탁받았다고 했죠?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네.

○朴來雨 委員; 그런데 각종 위탁관리시설 매점이라든가 공개 입찰을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저희들이 최초 94년도에 1차를 했습니다. 94년도 7월에 1차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한 3~4년간 계속적으로 연장을 해서 통상적으로 입찰을 한 번 하면 한 3~4년 이상 갑니다.

○朴來雨 委員; 94년도에 최초로 할 때 그 전의 운영하고 대비, 몇 % 증가되었습니까?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98년도.....

○朴來雨 委員; 아니, 94년도에. 94년도에 최초로 공개경쟁입찰 했을 때 본래 운영하고.....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그 전보다 한 70% 증가되었습니다.

○朴來雨 委員; 70% 증가했어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네.

○朴來雨 委員; 94년도에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네, 94년도 할 때 평균 70%, 각 매점별로 다르겠습니다만 평균 70% 증가했습니다.

○朴來雨 委員; 94년도에는 상당히 경기도 좋았는데 70% 증가했고, 금년 99년 위탁료를 보니까 351%가 평균 증가했죠?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네, 그렇습니다.

○朴來雨 委員;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장님 견해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94년도에 증가된 것은 저희 어린이대공원에서 94년도에 할 때 통상적으로 허가로 해 오다가 최초로 저희들이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입찰에 많이 참여했는데 저희들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서울대공원에서 입찰을 함으로써 대폭 오른 것 같습니다, 96년도경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98년도에 하니까 IMF로 인해서 일반 시중에서는 장사가 잘 안 되는데 공원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와 보면 그분들이 찾아 오는 경우가 거의 다 일요일, 휴일에 많이 찾아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이란가 이런 데는 장사가 잘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시중보다도 저희들한테 더 고가로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98년도 할 때 시중의 임대료는 거의가 다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공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물리는 것으로 보아서 저희들 쪽으로 많이 늘어난 것으로.....

○朴來雨 委員; 아니, 공개경쟁입찰 위탁자가 상권이라든가 모든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 뜻에서 많은 금액을 써 냈지, 우리 施設管理公團에서 임의대로 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그렇죠.

○朴來雨 委員; 그렇다면 지금 현재 98년도 자립도가 70%라고 했죠?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네, 그렇습니다.

○朴來雨 委員; 그러면 99년도에 각종 시설 공개입찰로 인해서 351%가 증가했기 때문에 자립도가 몇 % 정도 상향조정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그렇게 되면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물원 개선 공사에 28억원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비가. 그러다 보면 금년도 지출예산이 84억입니다. 지출예산이 84억인데 수입은 금년도에 전년도보다 25억이 더 들어오는 것으로 하면 71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합치면 100%가 안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투자비 28억을 빼고 순수한 저희들 운영비 가지고 하고 110% 정도 됩니다.

○朴來雨 委員; 투자비는 지금 수입에서 투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 예산에 잡혀 있으니까.....

○朴來雨 委員; 위탁을 받아서 예산은 잡혀 있기 때문에 투자

는 관계없이 운영상으로 생각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몇 %가 증가되었다, 간단히 말씀하세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그러면 저희들이 순수하게 운영비는 55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입은 71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한 40% 정도 증가, 14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朴來雨 委員; 그렇죠? 그런데 86년부터 위탁을 받았는데 왜 이런 시설을 알면서도 계속 수의계약을 했어요? 진작 했으면 오히려 흑자가 났을 텐데, 우리 所長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94년도에 공개경쟁을 했을 경우에.....

○朴來雨 委員; 이전에 물론, 所長님 언제 부임하셨죠?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96년도에.

○朴來雨 委員; 그 전의 일을 물어보는 것은 우리 所長님이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所長님이 계시는 동안 느낀 점이 86년도부터 수의계약을 않고 공개경쟁입찰을 했다면 운영상 적자는 보지 않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그 당시 86년도부터 저희들이.....

○朴來雨 委員; 적자 안 봤죠, 그때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네?

○朴來雨 委員; 86년도에 인수인계 받았을 때 적자 안 봤었죠, 86년도부터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86년도 조금 적자가 났습니다. 많이는 안 났습니다만.....

○朴來雨 委員; 조금 적자 나는 것을 충분히 施設管理公團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적자를 보는 거예요,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86년도에 처음 받으면서 여기에서 막바로 받자마자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안했었느냐 하는 이런 위원님 질책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시설 받을 때는 놀이동산 같은 경우 기부채납이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놀이동산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서울시에 돈을 주면서 시설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투자해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주면서 일부 위탁료를 적게 받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놀이동산 같은 경우는 98년도 12월에 투자비가 회수되어서 저희들한테 완전히 넘어온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별로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당시 또 다른 기관, 다른 데 대해서도 일반경쟁 그것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서 연장해 준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朴來雨 委員; 지금 本委員이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施設管理公團에서 운영을 잘못 해서 지금 적자를 보고 있어요. 所長님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막대한 예산을 해서 좋은 시설을 해서 서울시에서 운영권만 주었어요. 그리고 새롭게 시설을 하려면 또 예산을 편성해 주고, 그렇죠?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네.

○朴來雨 委員; 새로 돈을 운영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노후시설물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준다니까, 施設管理公團에 요구만 하면. 그리고 운영에서 흑자보는 거에

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그런데 자립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시설비까지 다 합쳐서 순수하게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받은 금액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입한 그 자립도를 다 따진 겁니다. 그래서 시설투자비도 그 동안 모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朴來雨 委員; 일반직 말고 37명이 일용직입니까?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고용직입니다.

○朴來雨 委員; 고용직입니까?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네.

○朴來雨 委員; 고용직이니까 월급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지급합니까?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일당제로 해서 자기가 근무하는 날수를 따져서 주고 있습니다.

○朴來雨 委員; 그러니까 37명이 12개월 1년 365일 다 근무하죠?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아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연봉 한 통상적으로 800~900만원 정도 됩니다.

○朴來雨 委員; 한 사람 앞에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네.

○朴來雨 委員; 앞으로 施設管理公團에서 운영하는데 적자 안 보고 운영할 수 있어요? 운영만.....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朴來雨 委員; 언제부터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99년도부터 그렇게 될 것입니다.

○朴來雨 委員; 자신합니까?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네.

○朴來雨 委員; 만일에 적자 보면 우리 서울시에 다시 환수해야 합니다.

우리 室長님 분명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鍾來; 李成浩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成浩 委員; 李成浩 委員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 98년도 자립도가 70%라고 하셨는데 자료에 보니까 계획은 54%고 실적은 57%인 데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98년도 말씀이죠?

○李成浩 委員; 네,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계획은 세입이 39억 1,700만원이고 세출이 72억 6,500만원인데 실제 실적은 세입이 36억 9,500만원이고 세출은 64억 3,600만원입니다.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저희들이 단순비교하면 57%가 됩니다. 여기에서 투자비를 빼고, 제가 70%라고 한 것은 97년도를 잘못 얘기했습니다. 97년도에 68%인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것을 하면 57%가 됩니다. 여기 세출 중에서 저희들이 동물사 개선공사 투자비가 1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비는 공원의 자립도 계산할 때는 통상 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한 20%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李成浩 委員; 답변하실 때 주관적인 의도를 가지고 수치를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98년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었고.....

○金恩京 委員; 李成浩 委員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요청만

먼저 하겠습니다.

○李成浩 委員; 그러십시오.

○委員長 金鍾來; 네, 金恩京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恩京 委員; 지금 어린이대공원에서 여기 오시는 절차도 상당히 어려우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建設局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 자료 가지고 하셨습니까?

○어린이대공원管理事業所長 千載敬; 建設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金恩京 委員; 저는 사실은 옛날부터 업무보고를 안 받아서 그런지 내용을 파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자료를 몇 가지 우선 신청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5년 동안 세입·세출의 항목별 내용을 죽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투자사업들이 실제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세입에도 입장료 이런 것들 있죠, 위탁료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위탁계약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위탁료가 10억원이 35억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어디에서 어떤 심사를 해서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 그 내용까지 일단 자료를 보충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鍾來; 李成浩 委員 계속하십시오.

○李成浩 委員;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 지적도 있었습시다만 자료가 너무 부실한 자료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내용도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먼저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인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 어린이대공원이 86년도부터 施設管理公團에 이관되고 난 때부터의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향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중에도 있었습시다만 그 기간 동안에 지

속적으로 하향했습니다만 시설은 기부채납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민간이 운영하던 것을 서울시로부터 즉 이관받아 온 기간 동안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는 낮아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로 설명할 것이 아니고요, 아까 金恩京 委員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전 위원한테 같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6년도에 최초로 이관받았을 당시의 세입·세출현황부터 해서 지금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을 지금 여기 보고한 자료처럼 토털액수만 적어놓지 마시고 세입 각 원별로, 그 다음에 세출은 각 세출항목별로 구분해서 연도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金判吉 委員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施設管理公團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과 현재 環境管理室 산하 사업소 형태로 관리하는 두 가지 방안이 시정개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다가 현재까지는 변화가 없는 상태로 가는 것으로 됐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소장께서 施設管理公團에서 관리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좋은 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단점 비교해서.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저희들 施設管理公團은 어느 정도 수익도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봉사도 해야 되는 그런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공단이라는 데가.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단에서 들어와서 자립도가 낮아졌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市의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여줍니다, 조

레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최초로 그 당시 할 때는 어린이들에게…….

○李成浩 委員; 아니요, 施設管理公團에서 운영하는 것과 서울시 사업소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해 달라고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서울시 사업소에서 공무원이 했을 때는 어떠한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틀에 박힌 이런 경영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 공단에서는 보고서에서도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최대한으로 저희들은 융통성있게 활동을 해서 수입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저희 직원들은 그 당시 최초로 공원 받을 때만 해도 서울에 유일한 공원이 어린이대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전부 어린이대공원에 소풍오고 했기 때문에 수입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사공원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린이대공원의 입장객을 그쪽으로 뺏기고, 그 다음에 시설면에서도 저희들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민간유희시설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한 시대적 변화가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봄꽃축제라든가 이런 때는 밤 10시까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3시간 연장도 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해가 길어집니다.

길기 때문에 토요일 밤 9시까지 2시간 연장해서 6·7·8월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공무원들보다도 좀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가고요.

앞으로 저희들 施設管理公團에서 운영하면서 지금까지는 경영마인드에 대해서 솔직하게 별로 관심을 안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와서 모든 공기업에 대해서 경영마인드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요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건의해서라도 수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어린이대공원의 입장료라는 것은 900원으로서 서울대공원에 비해서.....

○李成浩 委員; 잠깐만요, 자꾸 이것 저것 번지는데 자립도를 높여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맞출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施設管理公團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서울시에서 직접 직할하는 것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施設管理公團에서 운영해야 될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었던 것인데, 제가 들은 내용은 공무원보다는 봉사정신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 하나하고, 두번째 보다 더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두 가지밖에 제가 말씀하신 것 중에 요약할 수가 없겠어요.

그렇다면 서울시 공무원이 공단직원보다는 봉사정신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계신 거네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개별적으로 따졌을 때는 공무원들이 훨씬 낫죠. 그런데 제도적으로 공무원이 하면서 수입에 너무 치중했을 때는 일반시민들이 어떠한.....

○李成浩 委員; 됐습니다. 자꾸 재정자립도만 맞출 이유는 없어요. 재정자립도가 적으면 적은 대로 이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정도 있더라도 관리를 제대로 했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만 가지고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

꾸 그 점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장점이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지난 86년도에 위탁을 한번 해 본 것이고요.

그리고 그 동안에 자립도가 점차적으로 떨어져 왔던 것은 사실인데 이 이유 중에서 요금을 제때 제때 못 올려줬던 측면도 있고, 또 그 밖에 다른 공간이 많이 만들어졌던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 다 감안하고서라도 그 동안에 공원운영 자체가 매너리즘 쪽으로 운영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만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단에 위탁했는데 과연 공단에서 운영하면서 민간기업의 여러 가지 놀이시설과 경쟁할 수 있는 자기 변화의 노력들을 과연 얼마나 해 왔느냐, 기존의 것을 그대로 그냥 유지보존하는 것 외에 특별한 발상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좀더 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기법을 동원할 수 있는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결과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자립도의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다른 얘기 가지고 본질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아까 자료요구는 했으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요구하겠는데요. 수입과 관련해서 입장료가 연도별로 죽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금책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찾아서 그것까지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더불어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鍾來; 지금 소장님께서서는 우리 金恩京 委員님이나 李成浩 委員님이 자료요청하셨죠? 그 자료요청한 부분을 두 분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십시오.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알겠습니다.

○李成浩 委員; 그리고 여미지식물원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鍾來;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만 질의하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미지식물원에 대해서도 물을 것이 있으면 같이 물어 주십시오. 답변은 먼저 질의하신 부분에 먼저 답변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답변하고 이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李成浩 委員;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미지식물원은 원장님이시라고 하나요?

○濟州觀光植物園如美地管理事業所長 許南大; 사업소장입니다.

○李成浩 委員;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흑자다 하는 느낌을 준 것 같은데요. 이것이 지금 재산가치를 현재 518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계시다는데 518억원 은행예금 이자보다도 수익이 안 나는 것입니다.

○濟州觀光植物園如美地管理事業所長 許南大; 네, 연리 12% 따지면 연간 60억원 이자 발생하는 거죠.

○李成浩 委員;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20억원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자수입만 해도 40억원 손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털 이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할 때 지난번 실장님 아닙니다라고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처분될 계획이죠?  
의회승인을 얻어야 되겠지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 부분은 아마 사업소에서는 잘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市에서는 금년에 일단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시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李成浩 委員; 지난번에 본회의에 깔린 안건을 보니까 승인 요청이 되어 있더라고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금년에 매각될 예정에 있습니다.

○李成浩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鍾來; 金基星 委員 질의하십시오.

○金基星 委員; 金基星 委員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소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대공원은 어디에 소재해 있습니까?

○어린이대공원管理事業所長 千載敬; 광진구 능동에 있습니다. 건대 앞에 있습니다.

○金基星 委員;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소재지가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상세하게 번지수까지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린이대공원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위원회에 하십니까?

○어린이대공원管理事業所長 千載敬; 建設委員會에서 받았습니다.

○金基星 委員; 環境水資源委員會에서 어린이대공원의 업무보고를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이 들어갔을 텐데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린이대공원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저희들은 업무보고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최

초에 저희들이 여기 면수가 적은 것은 環境管理室에서 통합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그 일부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아서 양이 적었습니다만 원래 저희들 공원에 한번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보시면서 할 때는 이보다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基星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어린이대공원 소장님은 공무원이시죠?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아닙니다.

○金基星 委員; 그러면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市 투자기관 직원입니다.

○金基星 委員; 그리고 지금 어린이대공원 내에는 20개 업체가 관련되어 있다는데 업체가 대략 어느 어느 업체입니까? 무엇 무엇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까?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수가 제일 큰 것이 놀이동산이라고 해서 애들이 놀이기구 탈 수 있는 놀이동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점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이 2개소가 있습니다.

○金基星 委員; 그리고 공원 내에는 육영재단에 속해 있는 건물이 있습니까?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그것은 어린이회관이라고 해서 완전히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金基星 委員; 그것은 대공원하고 별개입니까?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네, 별개입니다.

○金基星 委員; 운영의 묘고 이런 것이 다 별개입니까?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그렇습니다. 운영 자체가 완전히 별개입니다.

○金基星 委員; 그러면 면적에도 포함이 별개입니까?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네, 완전히 별개입니다. 17만 6,000평이 빠져 있습니다.

○金基星 委員; 빠져 있습니까?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네.

○金基星 委員; 그리고 지금 所長님께서 업무보고 말씀중에 물론 대공원이나 유사한 공원들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세수입이 적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사실 어린이대공원이라는 공원 자체가 서울 시민에게 물어보았을 때 점점 망각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원인은 물론 廣津區에 속해 있는 어린이대공원이 果川이나 이런 데가 없었을 때, 예를 들어 에버랜드라든지 이러한 대규모의 민간투자시설의 공원이 없었을 때는 물론 부각을 나타냈으나 그 후에는 점차 어린이대공원이 어디에 속해 있으며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本委員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린이대공원이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 7호선이 정문으로 관통하고 있죠?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네, 있습니다.

○金基星 委員;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이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에서 어린이대공원 역사에 내리면 바로 어린이대공원이라는 것만 서울 시민에게 부각을 시키고 알려 주어도 지금 말씀하신 무슨 어린이사상대회라든지 글짓기대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거기서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所長님은 이러한 데 홍보의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데, 그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100% 찬성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어린이대공원이 지하철이 개통이 되어서 5호선, 7호선이 정문과 후문을 다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때 개통이 되었을 때는 94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95년, 96년, 97년도 110% 이상 계속 신장이 되었습니다. 신장이 되었고, 그 안에 92년도부터는 지하철 공사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상당히 입장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한 여건에 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십분 발휘해서 홍보에 적극 치중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홍보 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특성상.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봄마다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각급 학교에다가 전 교육청을 통해서 공문도 보내고 그 다음에 각종 매스컴에 보도자료를 내서 이런 방법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어린이대공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마련하겠습니다.

○金基星 委員; 거기에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현재 서울의 중심지역에 이것처럼 시설이 좋고 편리한 공원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 所長님 말씀하신 그 계획성을 홍보의 차원에 역점을 두어서 하게 되면 어린이대공원에 좋은 그리고 세수입이 확대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미지식물원 所長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여미지식물원의 공매라고 하나요, 그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濟州觀光植物園如美地管理事業所長 許南大; 지금 서울시에  
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소장으로서 자세한 내  
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金基星 委員; 그렇습니까?

그리고 역시 여미지식물원 所長님께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제주도 관광 하면 실제 시설물이 서울시로 이관되기 전보다  
도 홍보가 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면 지난번 같은 작년 예를 든다면 저도 여미지식물  
원이 있다는 것만 알았지, 용설란이 100년에 한번 핀다는 꽃  
이 지난번 TV와 매스컴을 한번 탄 적이 있죠?

○濟州觀光植物園如美地管理事業所長 許南大; 네, 있습니다.

○金基星 委員; 그 당시에 저도 가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인데 여미지식물원에 가 보면 그리  
한 아주 희귀한 식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곳에서  
도 홍보가 덜 되어서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여미지식물  
원을 등한시하는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所長  
님의 홍보활동의 계획을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濟州觀光植物園如美地管理事業所長 許南大; 지금 입도객에  
대한 관광객 유치홍보전략 자체가 저희는 지금 사실상 승객  
알선업체에 대해서 월 100명 이상 입장을 했을 때 10% 승객  
알선료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홍보자체가 미비하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것  
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자체에서 홍보를 위  
한 홍보팜플렛, 그리고 영문으로 된 책자 이런 것을 작년도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에 가 보시면 여미지식  
물원에 대한 전광홍보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최대한도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각종 전시회라든가 이벤트행사 이런 것은 연중 개최하면서 각 신문이나 지방지에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입장객은 계속 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基星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鍾來; 宋美花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美花 委員; 어린이大公園所長님,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所長님, 地方公企業法 제3조에 보면 경영의 기본원칙에 공단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진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나 하면 공단이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동시에 충족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운영에 노력을 기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所長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이 기업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익성을 올리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공익성이 더 떨어져서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시민한테 봉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이대공원이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지금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연간 280만명이 어린이대공원을 찾아오지만 전부 무료로 해 주고 또 그 애들이 와서 시설을 망가뜨리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또 공익성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것을 따르다 보니까 또 기업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상

당히 양면관계가 있어서 그것을 조화롭게 잘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어디까지나 수익성 쪽에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기업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수익성을 올려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98년도에도 위탁업소에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했고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해서 어린이대공원이 유사공원과 같이 경쟁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宋美花 委員; 지금까지는 경제성과 공공복리 두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라는 그런 생각이신 것 맞습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어린이대공원은 어린이들이 주이용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린이대공원이 주이용객인 어린이들에게 알맞게 시설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린이대공원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지금 현재 저희들이 73년도에 개원해서 어린이대공원의 특색이라는 것이 어린이들이 와서 노는 유희시설보다도 지금 현재로써는 어린이대공원이 제일 자랑하는 것이 나무숲입니다. 숲과 잔디 이러한 수림이 어린이대공원이라고 하면 제일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유희시설에 대해서는 투자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기종이 들어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기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라든가 에버랜드라든가 이런 데는 새로운 기종이 들어와서 애들한테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어서 많이 찾아가고 이러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시설이 떨어지

고 있습니다. 떨어져서 애들한테도 인기가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96년도부터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서 시설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宋美花 委員; 그러면 지금 어린이대공원은 주이용객이 어린이지만 어린이들에게 유희시설을 제공하는 것보다 어린이대공원의 특징은 숲과 넓은 잔디, 나무 이런 것들에 있다, 그렇죠?

○어린이대공원管理事業所長 千載敬; 네, 그렇습니다.

○宋美花 委員; 그러면 어린이들이 그곳을 찾았을 때 숲과 나무, 잔디, 수림대를 활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정서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녹지 안에 들어갔을 때 정서적으로 부합되는 것 말고 施設管理公團에서 적극적으로 이용객들에게 녹지나 수림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어떤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린이대공원管理事業所長 千載敬; 그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근교에 소풍갈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봄이면 봄, 봄과 가을에 유치원생 재롱잔치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어린이대공원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소를 제공해 주고 있고, 그리고 국민학교 소풍 왔을 때 인솔교사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 주고 주차비라든가 이런 것은 무료로 해 주면서 거기에서 어떠한 기구를 가지고 노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자비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안 되고요. 소풍 와서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장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宋美花 委員;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린이라는 것이 유치원에서부터 12세 이하를 어린이로 잡으셨는데요. 그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방목할 수 있도록 해 놓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네, 그렇습니다.

○宋美花 委員; 제가 어린이대공원을 저희 식구들이 추석 때마다 갑니다. 추석 때마다 가는데 여러 가지 초목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통도 여러 가지 편리하고.

그런데 나무나 여러 가지 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예를 들어서 개똥나무 이렇게 있고 며느리밥풀나무 이렇게 있으면 그것만 있지,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을 발휘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서는 동·식물교실을 운영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모양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주이용객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施設管理公團에서 위탁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유사공원이 있어서 입장객이 이탈한다, 이것은 우리가 민간업체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 서울시에서 우리들에게 그만큼 여력도 주지 않았다고 이쪽으로 화살을 돌리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98년도에 10억원을 들이고 이번에 28억원을 들여서 동물사를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대공원에서 동물사를 새롭게 개축하면서 동물들을 그곳에 갖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그렇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宋美花 委員; 어떤 의미에서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지금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 보면 공원에서 제일 선호도를 갖는 것이 방금 얘기한 나무이고요, 다음에 호기심을 갖는 것이 동물원입니다. 동물원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는 넓어서 애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물원을 소규모로써 애들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동물들을 다 보유하고 있으면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학부모들에게 장소 제공하는 교통이 좋은 도시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宋美花 委員; 동물이 있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그만한 시설비, 동물 한 마리 비쌉니다. 코끼리, 호랑이 비쌉니다.

또 유지보수 관리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듭니다. 所長님, 그렇죠?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네.

○宋美花 委員; 그런데도 우리가 어린이대공원에서 동물원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동물이 있으면 좋습니다. 저도 찬성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가 이런 것에 보면 굉장히 엄청난 고화질도로 뱀이 알을 낳고 부화하는 과정, 아니면 여러 가지 동물의 생태에 대해서 굉장히 실감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린이대공원에 가서 코끼리, 호랑이, 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책에서 보던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정도에 그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그 부분은 위원님은 보는 것을 떠나서 애들한테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동물사 구조 자체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면서 시민들의 관람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장도 마련해서 어린이들이 왔을 때 동물에 관한 비디오를 보여준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려고 지금 동물사를 개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이 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宋美花 委員;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施設管理公團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보다 비교적 탄력적으로 연장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을 최장점으로 말씀을 하셨고, 업무보고서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施設管理公團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이 지금 경영의 기본원칙인 경제성과 공공성 이 두 부분에 대해서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상태에서 운영시간의 연장 이런 것만 가능하다면 그 부분이 施設管理公團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최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그것은 꼭 施設管理公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보다도 위원님 말씀대로 유사공원이 많이 생기면서 들어오는 사람은 일정한데 분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운 시설이 자꾸 생겨서 하다 보니까 해마다 입장객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저희 공원에 찾아왔을 때 시간에 따라서 즐길 수 있도록 야간개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른 데 다 하

는데 우리 공원이라고 해서 문닫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어떠한 비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얘기한 대로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나와 되는데 저희 공원의 입장료라는 것은 900원, 500원입니다. 어떠한 행사 하나 유치하더라도 7,000~8,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들어서는 수지가 안 맞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야간에 꽃이라든가 이런 것을 즐길 수 있도록 야간개장을 해서 인근 도심에 있는 시민들이 퇴근하고 와서 찾을 수 있도록 해 주려고 그래도 저희들이 야간개장을 하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宋美花 委員; 그러면 소장님, 예를 들어서 코끼리라든가 동물들이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폐사된 동물에 대해서는 맹수류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것은 먹이로 대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니고 곰이나 호랑이는 서울대공원에 가서 화장을 합니다.

○宋美花 委員; 죽은 원인을 확인하고 먹이로 제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그렇습니다. 먹이로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서울대공원에서 소각을 시킵니다.

거기에 동물소각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소각을 시킵니다.

○宋美花 委員; 어린이대공원에는 소각로가 없고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네, 없습니다.

○宋美花 委員; 아까 소각로 하나 있었는데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그것은 쓰레기소각로입니다.

○宋美花 委員; 쓰레기소각로는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그것은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宋美花 委員; 왜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소각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도심에 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이것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그 옆 민가에 있는 분들이 구청에 민원을 야기시켜 지금 현재 가동중지된 상태입니다.

○宋美花 委員; 알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민원이 없는 소형소각로지만 민원이 발생해서 중단사태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지나치게 소각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쓰레기적환장을 이설공사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그렇게 민원이 많았던 것인가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그렇습니다.

○宋美花 委員; 어떤 민원들인가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그것이 왜 그러느냐면 담 하나 사이에 쓰레기적환장이 있는데 여름에는 쓰레기적환장에서는 냄새가 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비닐치고 이렇게 하더라도 공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어떠한 악취나는 그런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유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민가하고 떨어진 장소에다 옮기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宋美花 委員; 소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주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매점이 1쪽에 주요 시설에 보면 2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료에 보면 매점이 17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는 왜 나는 거죠?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그것은 매점이 한 평짜리도 있고 두 평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묶어서 저희들이 한 업체에 위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되는 데하고 안 되는 데하고 두 군데 합쳐서 1개 업체가 2~3개를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 주 통행로에 있는 매점은 잘 됩니다. 변두리에 있는 경우는 봄에는 잘 되는데 겨울에는 운영이 안 됩니다. 그것은 간이매점이거든요. 간이매점은 그것하고 묶어서 같이 입찰을 해 버렸습니다.

○宋美花 委員; 커피자판기 이런 것까지 입찰하나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커피자판기는 社會福祉法에 의해서 그분들만 입찰을 본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장애인이라든가 모자가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선순위를 주어서 입찰된 것입니다.

○宋美花 委員; 이것은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제가 어린이대공원에 지난번에 가보니까 파브르콘충전인가 하고 나서 남은 무대설치했던 자재들을 그냥, 아까 수림대를 굉장히 중요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치우셨겠지만. 추석때 가서 봤는데.....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다 치웠습니다.

○宋美花 委員; 그것이 여름에 했던 것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 시설 시설마다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어린이대공원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알겠습니다.

○宋美花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鍾來; 金興植 委員님 말씀하십시오.

○金興植 委員; 金興植 委員입니다.

제111회 임시회 들어와서 다른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어린이대공원管理事業所長 千載敬; 建設委員會에 합니다.

○金興植 委員; 여미지식물원도 했어요?

○어린이대공원管理事業所長 千載敬; 施設管理公團 업무보고 할 때 같이 합니다.

○金興植 委員; 그런데 제가 머리가 우둔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업무보고를 가지고 파악한다는 자체가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들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도 어떻게 施設管理公團에서 위탁한 업무보고와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너무나 달관적이고 이해하기가 곤란하고, 아무리 읽어봐도 업무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모르겠어요. 이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했습니까?

○어린이대공원管理事業所長 千載敬; 그렇습니다.

○金興植 委員; 지금 여미지식물원 같은 경우는 직원현황도 안 나와 있어요. 너무 형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무시한 것도 같고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어린이대공원 업무보고때 98년 자립도를 몇 %라고 했죠?

○어린이대공원管理事業所長 千載敬; 98년도는 57%고, 97년도는 68%입니다.

○金興植 委員; 99년도 계획은요?

○어린이대공원管理事業所長 千載敬; 99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90% 정도 잡습니다.

○金興植 委員;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90% 돼요?

○어린이대공원管理事業所長 千載敬;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수입은 이것보다 더 나올 것으로 판단해서 예상입니다.

○金興植 委員; 세입과 세출내역 99년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어린이대공원管理事業所長 千載敬; 계획은 50% 됩니다.

○金興植 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해 놓고 답변하실 때는 상당히 과장된 답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몇 년도 가면 100% 달성하겠다고 했잖아요?

○어린이대공원管理事業所長 千載敬;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金興植 委員; 계획을 정할 때 그대로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린이대공원管理事業所長 千載敬; 99년도 세입예산이 41억원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60억원 정도 세입이 나옵니다.

○金興植 委員; 알았습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맙시다. 결과적으로 업무보고할 때 답변만 해 버리면 넘어가지 않나 이런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해 주셔야 저희들도 그것을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만 자료로 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비도 하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어린이대공원이나 여미지 식물원은 순수한 관리만 하죠?

○어린이대공원管理事業所長 千載敬; 그렇습니다.

○金興植 委員; 그래서 운영의 방향이라든가 계획, 성격, 세부조성계획은 우리 環境管理室에서 하고요. 室長님 나가셔서 답변이.....

(「環境管理室에서 누가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없어요」 하는 委員 있음)

○公園綠地課長 崔容豪; 그렇습니다. 계획부분은 市 環境管理室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興植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어린이대공원하고 서울대공원, 내가 보기로는 대충 공원의 생태라든가 운영방법 모든 것이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구태여 어린이대공원만 施設管理公團에 맡기고 서울대공원은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公園綠地課長 崔容豪; 조직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여러 번 논의 끝에 어린이대공원은 施設管理公團에서 그대로 관리토록 하고, 서울대공원이라든지 여타 공원에 대해서는 市 직영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興植 委員; 물론,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현재 주무 실장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똑같은 입장인데 왜 여기는 施設管理公團에서 하고 어린이대공원만 빠져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만약에 어린이대공원도 문제가 있다면 민영화될 수 있는 것이고, 또 施設管理公團에서 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서울대공원도 施設管理公團에서 취급하는 것이 더 좋은 점이 있다면 서울대공원도 그

방향으로 흘러야 될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 실장님의 뜻을 묻고 싶어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어린이대공원은 이미 86년도에 施設管理公團에 위탁이 되어서 이것을 다시 市 산하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지난번에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처음에 施設管理公團에서 서울시 사업소로 넘겨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지배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市의 입장에서는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우리가 인수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시정개혁위원회에서의 논의과정을 자세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현 상태대로 施設管理公團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공원은 전반적으로 봐서 중산층 이하의 시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 전체를 전부 施設管理公團이라든가 또는 민영화한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는 서비스를 보다 더 잘할 수는 있겠지만 수익성 면에서는 매우 뒤떨어지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것이 시정개혁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金興植 委員; 잘 알았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이 쪽에는 施設管理公團에서 하고, 말하자면 대동소이한 공원규모라든가 형태가 그런데 거기에서 장·단점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어린이대공원은 施設管理公團에 맡겨야 좋다 그런 결론이 났을 것이고, 서울대공원은 施設管理公團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갈라진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86년도 이관 당시에 어린이대공원뿐만 아니라 서울대공원까지 함께 검토되어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비교분석해서 서울대공원은 안 되고 어린이대공원은 된다 이런 식의 분석을 통해서 어린이대공원만 위탁관리한 것은 아니고, 어린이대공원만 그렇게 떼어서 검토를 해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興植 委員; 충분히 어린이대공원을 관리를 해 봤기 때문에 장·단점이 나왔을 텐데 계속 그런 재정자립도가 뒤져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운영이 된다는 것은 뭔가 다시 어떠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미지식물원하고 어린이대공원 업무보고 문제네요, 이런 업무보고는 앞으로는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업무보고 가지고 어떻게 업무보고라고 와서 위원님들 앞에서 업무보고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간단히 말해서 직원현황도 안 나와 있고 몇 장 써 와서 대규모 어린이대공원 업무보고라고 해서 종이 몇 장 놔두고 앉아서 어떻게 파악을 하시겠어요? 입장을 바꿔 놓고 이것 파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계속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지만 저희들은 종이 몇 장만 보고서 업무를 알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업무파악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자세하게 앞으로 어느 쪽에서 하시든 간에 업무현황보고에 대해서는 자세하고 소상히 알기 쉽게 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金鍾來 委員長, 金在實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金在實; 金興植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아마 建設委員會에서 했던 그대로를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環境水資源委員會에서는 처음 아닙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좀더 자세하게 해 왔어야 되는데 그것을 간과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올 기회가 있다면 좀더 디테일하게 해 주시고, 이 회의가 끝난 후에라도 내일이라도 자료만은 소상하게 챙겨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松竹 委員님 말씀해 주십시오.

○李松竹 委員; 李松竹 委員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이 보고서를 보면서 지금 현재 주소도 빠져 있죠. 몇 년도, 73년도에 개원했습니까?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네, 그렇습니다.

○李松竹 委員; 그러면 86년도에 인수했습니까?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네.

○李松竹 委員; 그러면 여기다 써야죠. 어린이대공원 운영하면 서울대공원에서 한 것인지 남서울공원에서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용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파악할 길이 없는데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지만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100% 자립도를 장담하는 所長이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 것도, 아주 좀 왕성하게 자기가 펼칠 계획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 계획을 믿어도 될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所長으로 발령받은 해가 언제입니까?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95년도 11월입니다.

○李松竹 委員; 95년 11월요? 굉장히 오래되었네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3년 4개월 되었습니다.

○李松竹 委員; 오래되었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 어린이대공

원은 상세히 아실 것 같은데 보고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했는지 의아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2페이지에 위탁운영에 대해서 58개소가 있죠? 거기 놀이시설 1, 수영장 2, 매점 26, 식당 3, 기타 26이라고 했는데 이 26개 기타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거기는 유모차가 두 군데가 있고요. 유모차 빌려 주는 데입니다. 그리고 화장지 자판기가 화장실 앞에 하나씩 있어서 16개가 있습니다. 화장실 자판기 해서 화장실 앞에 돈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료자판기가 6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시관이 하나 있고, 소극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26개입니다.

○李松竹 委員; 아주 적은 것이 아닌데 왜 소상히 여기에 기록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여기는 지금 화장지 자판업체가.....

○李松竹 委員;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머리가 좋아서 딱 26개 하면 우리가 탁탁 알 줄 알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94년 7월 공개경쟁입찰을 하셨다고 그랬죠?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네.

○李松竹 委員; 그 당시에 입찰한 업자 계약서 사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네, 알겠습니다.

○李松竹 委員; 사본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우리 同僚委員이 지적을 하셨는데 쓰레기적환장 이설공사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이는 의미에서 주택인접 노후쓰레기 적환장 구의문 쪽의 공지이전이라고 하셨는데 그쪽에도 역시 주택이나 사람 사는 것은 마찬가지로 않습

니까? 거기에도 민원이 안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거기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도로하고 인접이 되어 있는데요.

○李松竹 委員;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한 100m 이상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李松竹 委員; 100m 가지고는 안 되죠. 100m 가지고는 민원이 안 생길 수 없죠.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데는 완전히 담 하나가 민가로 들어서 있습니다. 최초에 이것 할 때에는 괜찮았는데 그 후에 담벼락 붙어 있어서 상당히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李松竹 委員; 그런데 지금 소요예산이 1억 5,800만원이나 드는데 이왕이면 다시 또 민원발생하지 않게끔 더 떨어진 장소를 물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同僚委員이 질문을 하셨는데 동물소각한 일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에 대한 소각일지.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그래서 저희들이 소각하는 것은 제가 모두에 얘기한 대로 곰이라든가 포유류 이것만 소각을 했고요, 서울대공원에 가서 합니다.

○宋美花 委員; 서울대공원에 보낼 때 수수료 같은 것 지불하나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수수료를 안하고 저희들이 기름값은 줍니다.

○李松竹 委員; 하여튼 몇 마리든 간에 동물소각한 일지를 주시고 또 서울대공원에 어느 날 무엇을 보냈다는 것도 상세히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또 의아스러워서 이것은 질문을 하겠는데 95년도에 所長으로 오셔서 일을 열심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은데 아까 어떤 위원 대답에 그 전에는 그냥 운영을 하다가 지금에 와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했다고 하시거든요. 그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전에는 슬슬 운영하고 월급만 받았다가 이제 와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왕성하게 활동하겠다, 그러면 100% 자립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市 투자기관의 임원들은 전에는 다들 슬슬 일하시다가 갑자기 근래에 와서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所長만 그렇게 하시는지 좀 알고 싶네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제가 그 전에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공단에서 서울시로부터 공원을 인수받아서 운영할 때는 실질적으로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는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쪽에다 많이 치중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새벽 5시부터 문을 열어 줍니다.

○李松竹 委員; 저는 활동하고 일을 하시는 것을 잘했다, 못했다를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면 所長으로 부임하셔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흑자를 내고 100% 이상을 흑자를 낼 일이지, 왜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이겁니다.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제가 처음에 95년도 오니까 그 앞에 전부 지하철 공사하고 해서 교통이 굉장히 번잡해서 입장객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5호선, 7호선 그때 지하철공사가 한참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개통이 되면서 97년도, 96년도부터는 입장객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96년, 97년도에 늘어났다가 98년도 작년 같은 경

우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IMF 때문에 모든 공원이 떨어지면서 저희들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마인드를 더 열심히 하겠다 하는 것은 종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제 사회적으로 IMF를 맞아서 여러 가지 보면서 저희들이 경영마인드에 대해서 종전보다 좀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李松竹 委員; 앞으로는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在實; 金鎬一 委員님 말씀해 주세요.

○金鎬一 委員; 金鎬一 委員입니다.

지금 千載敬 所長께서는 천편일률적으로 답변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建設委員會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보고한 주요업무현황을 오늘 3월 3일 수요일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지적을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86년도에 위탁관리를 시작을 해서 그 동안 뭘 했느냐고 그랬더니 위탁관리를 시작하면서 어른들하고 어린이들한테는 무료로 했다, 이것이 마치 施設管理公團에서 관리를 하니까 하는 것인 양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98년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보면 세입이 36억 9,500만원이고 세출이 64억 3,600만원, %는 안 나왔습니다만 27억 4,100만원이 적자입니다.

이 적자는 施設管理公團에서 자기 돈으로 낸 것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냈죠?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그렇습니다.

○金鎬一 委員; 그런데 施設管理公團 어린이대공원관리소장

千載敬 所長의 답변내용을 들어 보면 서울시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施設管理公團이 관리하는 것이 훨씬 낫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하는 얘기를 서슴없이 했어요. 지금 앉아 있는 그 자리가 공무원들 속에 앉아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더군다나 95년 11월에 발령을 받아서 지금 만 3년 한 4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99년도 예산을 보면 세입 41억 7,300만원, 세출 84억 6,900만원, 42억 9,600만원이 적자로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보고한 바에 의하면. 그런데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깐 네, 금년도에는 41억원이 아니고 한 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주는 이 자료는 엉터리 아니예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金鎬一 委員;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저희가 41억 7,30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작년도에 한 10월에 예산 편성하면서 계획된 자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2월에 위탁시설에 대해서 일반경쟁을 해서 한 35억원이라는 연간 수입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10억 되던 것이 35억, 그리고 거기에서 25억원이 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1억원이 25억 초과 한 60억 정도 수입을 올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99년도에는.

그 다음에 세출예산은 여기에 84억원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은 실제적으로 동물원 개선사업이 여기에 28억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환경테마공원의 일환으로 하는. 그래서 그것을 빼고 그러면 수입에 있어서

는 조금 밸런스가 맞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金鎬一 委員; 작년에 이 업무현황을 가지고 얘기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99년 3월 3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千載敬 所長께서는 과거 있는 그대로 베껴 와서 우리에게 준 것이예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아닙니다. 계획은 4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41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초과 달성하겠다는 뜻입니다.

○金鎬一 委員; 그러나 작년 12월에 공개경쟁입찰식으로 해서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입이 나면 25억이면 25억을 플러스해서 오늘 보고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그런데 저희들 목표는 이것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으로 한 것입니다.

○金鎬一 委員; 무슨 말씀이세요? 더군다나 공무원보다 낫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 千載敬 所長님, 建設委員會는 가서 이렇게 해도 통과가 되는 모양이지?

지금 위원께서 질의를 하게 되면 그냥 그냥 답변은 한 3년 몇 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나오는 것이 술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작년도 와서 경영마인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적자 나도 所長에게 큰 책임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왜 미리 못했느냐는 얘기에요. 그것도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그랬으면 이런 질의도 안합니다.

그러나 3년 몇 개월 동안 되어 가면서도 이제야 그것을 느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施設管理公團이 그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들만 뽐뽐 뭉친 데가 그 모양 그 꼴로 일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죄송합니다.

○金鎬一 委員;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만 질타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千載敬 所長 답변은 불성실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만 그대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오더라도 다 봐서 집계를 해서 우리보고 알아라 하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랑 몇 장 가지고 오면서도 그것 하나 제대로 못해 가지고 와서 여기 앉아서 그렇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내용은 적었어요. 서울시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施設管理公團이 운영하는 편이 훨씬 낫다, 시간적으로 우리는 9시도 하고 5시 새벽에도 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직에 어느 공무원이 가더라도 일은 똑같이 합니다, 적자나는 것 서울시에서 다 보전해 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금년 예상수입도 같이 얘기를 해서 세입이 얼마, 세출이 얼마 해서 같이 해 줘야지. 금년 28억원 공사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체 98년 10월부터 2000년까지 65억원 들어가는 것 나도 여기 써놓은 것 보고 알고 있어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잘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金鎬一 委員; 공원에 가보면 남강 선생의 묘비가 있는데 관리하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저희 공원에서 하고 있

습니다.

○金鎬一 委員;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네.

○金鎬一 委員; 그러면 남강 선생 묘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 것도 있죠?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네, 그렇습니다. 동상이 10개가 있고요, 기념비가 11개가 있습니다.

○金鎬一 委員; 그러면 합해서 30개군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동상이 10개고 기념비가 11개 해서 21개가 있습니다.

○金鎬一 委員; 그러면 그것도 계절별로 무슨 청소를 한다든지 주위에 잔디를 깎는 것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네, 하고 있습니다.

○金鎬一 委員; 괜히 그 자리만 있고 방치되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네, 그렇습니다.

○金鎬一 委員; 하여튼 모든 문제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어린이대공원이 되어야 됩니다. 입으로만 하는 대공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대공원, 이런 수치 하나라도 정확하게 표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대공원의 소장이 되어야 됩니다. 아셨죠?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네, 알겠습니다.

○金鎬一 委員; 두번째는 여미지식물원 許南大 所長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미지식물원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하여 인수하였는데 그때 취득가액은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

에 있는 재산가치하고 거기에 있는 재산가치하고 비교할 때, 인수할 때.

○濟州觀光植物園如美地管理事業所長 許南大; 인수할 때 정확한 재산가액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그때 당시에 518억원으로 보상을 해 준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金鎬一 委員; 그러면 環境管理室長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저도 삼풍으로부터 인수받을 당시에는 環境管理室에서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모르고요. 여기 518억원은 저희들이 공매하기 위해서 감정가를 정해서 두 번인가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유찰되었을 때에는 5%씩 깎습니다. 깎은 최종가액이 518억원이었기 때문에 市에서 518억원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金鎬一 委員; 그러니까 삼풍 쪽에서 그것을 인수할 때 그렇게 했다 이거죠?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당초에는 삼풍에 대한 모든 재산을 市가 위탁을 받아서 그것을 매각하고 거기에서 얻은 재원으로 보상을 삼풍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삼풍에 돈을 준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재산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팔아서 보상재원으로 메워 넣어야 됩니다. 메워 넣어야 되는데 이것이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최종적으로 유찰된 그 가격을 가지고 서울시가 인수를 했습니다.

○金鎬一 委員;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시가 낙찰이 되어서 유찰, 유찰 하다가 518억원까지 나오니까 그것을 했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그렇습니다.

○金鎬一 委員; 그러나 전체적인 삼풍재산하고 우리가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보상해 준 값이 있을 거예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보상해 줬습니다.

○金鎬一 委員; 그러다 보면 여미지식물원 얼마고, 다른 데는 얼마고 하는 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최소한도로 오늘 나와서 하게 되면 여미지식물원이 생기게 된 원인을 추적할 때는 바로 그것이 얼마만큼 되었느냐 하는 그런 예산이 나와야죠. 가정치가 나와야만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97년 감정평가액이 551억원이라는 것은 나와 있는데 인수한 값이 얼마인가, 그 동안 서울시가 관리하면서 이익이 얼마 나고 손해가 얼마 나고 하는 그런.....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설명을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주고 인수한 것은 아닙니다. 돈을 미리 주고 산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재산을 서울시가 관리를 하면서 그것을 팔아서 보상재원으로 충당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것을 팔려고 팔려고 하니까 도저히 팔리지 않아서 서울시가 인수를 하고, 그것이 518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삼풍백화점 부지 등등 해서 저희들이 보상하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국고보조를 그 당시 500억원을 받았습시다. 서울시비 500억원하고 1,000억원을 넣고도 전체 재원이 1,400억원이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金鎬一 委員; 바로 그런 사항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래서 그것은 이 재산가액이 아니고 전체적인 삼풍으로부터 인수받은 재산으로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1,400억원이 부족해서 그러면 1,400억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현재 총리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적어도 이 중에서 50% 이상은 정부에서 대달라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인 마무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鎬一 委員; 그렇다면 알겠습니다만 국고에서 500억원, 서울시에서 500억원 그랬는데도 1,400억원이 적자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그렇습니다.

○金鎬一 委員; 그러면 전체 삼풍에서 인수한 재산이 얼마이며, 그 얼마 중에 여미지식물원은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왔을 때 이 여미지식물원에 대한 평가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것은 팔리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만큼 돈 1,400억원을 플러스 해서라도 보상을 해 줬죠? 다 해 줬어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보상은 다 나갔습니다.

○金鎬一 委員; 그러니까 우리는 적자를 보고있는 거예요. 결국 2,400억원을 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가 그것도 알아야죠.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저희 市費 들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 500억원은 우리 시비가 아니기 때문에 500억원이 고요. 앞으로 1,400억원 중에서 시비가 700억원이 들어갈지 아니면 500억원이 들어갈지는 정부 부처하고 협의과정에서 보조가 반반으로 본다고 하면 700억원, 그러면 1,200억원이 결국은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삼풍 518억원은 우리가 공매할 때 518억원보다 더 많이 나오면 그만큼 서울시는 충당이 된다 그렇게 보여지면 됩니다. 삼풍으로부터 처음에 이것을 얼마 받는다고 딱 정해서 인수받은 것은 아닙니다.

○金鎬一 委員; 그러면 지금 삼풍백화점 그 자리를 지난번에 경매해서 낙찰되었죠?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그것은 대상건설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金鎬一 委員; 낙찰해서 받은 값을 서울시에서 갖는 것 아니에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렇습니다.

○金鎬一 委員; 그 동안 기이 보상을 해 줬으니까 그 값하고 차액하고 남으면 그것을 다 주고 남은 나머지가 여미지식물원이 하나 남았다면 그 값이 여미지식물원 값이에요. 518억원은 그냥 낙찰가격으로서 남는 것이지 결국은 전체 금액을 계산했을 때 여미지식물원 값이 518억원이라고 해서 남는 것은 아닙니다. 그간 적자를 서울시에서 많이 봤으면.....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여미지식물원 518억원으로 계산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1,400억원이 부족하다, 그것이 나온 것입니다.

○金鎬一 委員; 전체 재산에서 1,400억원이 부족한 것을 재산별로 나누다 보면 여미지는 결국 518억원이 아니라 700억원도 될 수 있고 800억원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부족분은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분담을 하는 것으로 당초 정부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金鎬一 委員; 그것이 경영마인드입니까? 하여튼 여미지식물원 許南大 소장께서는 제주도에서까지 와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앞으로는 자료가 충실하고, 자료뿐만 아니라 금년 한 해도 잘해서 경영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濟州觀光植物園如美地管理事業所長 許南大;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在實; 金鎬一 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宋美花 委員님 말씀하십시오.

○宋美花 委員; 어린이대공원 소장님, 지난번에 저희 서울시 公園綠地管理事業所長 朴慶泳 소장이 관련된 일이 우리 어린이대공원 묘목과 관련된 거죠?

○어린이대공원管理事業所長 千載敬; 네.

○宋美花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대공원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저희 환경테마공원 공사는 어린이대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조달청에서 계약이 되어서 감독 자체를 公園綠地管理事業所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설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공원에서 인수받았고, 그리고 공사 진행사항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宋美花 委員; 환경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어린이대공원管理事業所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이 부분은 따로 우리 環境管理室에서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분야라 이런 말씀이세요?

○어린이대공원管理事業所長 千載敬; 네, 거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宋美花 委員; 그리고 조달청에서 직접 계약을 맺어서 했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장은 모르신다 그 말씀이죠?

○어린이대공원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어떤 공사를 한 것 그런 것은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업소선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거기에서 다 해서 감독 자체도 公園綠地管理事業所에서 하고 저희들은 공사에 따른 편의제공이라든가 그 다음에 입장객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宋美花 委員; 그러면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것은 公園綠地管理事業所에서 사업을 맡아주려 해서 공사를 감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맡은 업체가 창인건설이라는 회사였는데 그 건설회사에서 公園綠地管理事業所長과의 그런 불미스러운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그래서 검찰에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宋美花 委員; 公園綠地管理事業所가 우리 環境管理室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나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 사건내용에 대해서는.....

○宋美花 委員; 그러니까 사건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고 어쨌든 하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신다는 것은.....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신다는 제 얘기는 그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금품수수가 얼마나 어떻게 되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宋美花 委員;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검찰에 기소되었으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검찰에 기소가 되었는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고, 또 액수 같은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宋美花 委員; 금품수수가 있었는데 실장님께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것은 저희가 어떤 사적인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와 서울시와의 상호공조를 갖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것이 무슨 대외비도 아니고 극비도 아니고.....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자리에서 사과말씀도 드렸지 않았습니까? 公園綠地管理事業所長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드렸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더 깊이있게 어떤 연유로 언제 얼마를 어떻게 주고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은 사실이 그래서 기소됐다는 그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더 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얼마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해서.....

○宋美花 委員; 좋습니다. 室長님께서 지금 어쨌든 저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시니까, 지금 우리 어린이대공원을 市 산하 施設管理公團에서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관리위탁을 하게 된 경위가 능률성 제고와 경영합리화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경영관리의 전문성을 지닌 서울시 施設管理公團에 공원을 관리위탁한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室長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지금 施設管理公團이 어린이대공원에 있어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관리의 전문성을 지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맞게 관리위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아까 질의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린이대공원 자체에서도 그 점을 깨닫고 보다 더 경영적인 그런 측면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다짐도 하고 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86년부터 이렇게 죽 오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새로운 개선방안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었

을 테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저희들 공직자보다는 좀더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점은 좀더 장점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어떤 질의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시다만 공직자들의 빈번한 인사이동 이런 것들보다는 어린이대공원을 관리하는 施設管理公團의 경우에는 부서별로 다 특수성이 있어서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관리기술의 축적을 하는 그런 면은 더 좋은 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宋美花 委員; 좋습니다.

어린이대공원 所長님.

○어린이대공원管理事業所長 千載敬; 네.

○宋美花 委員; 所長님께 자료를 몇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3년간 폐사된 동물내역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료 징수하죠?

○어린이대공원管理事業所長 千載敬; 네.

○宋美花 委員; 주차료 징수현황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잔디나 뭍니까, 꽃본 같은 것 구입한 내역서를 주시는데요.

그 내역서 중에서 公園綠地管理事業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금액을 별도로 계산해 주십시오, 잔디나 꽃본 같은 것 구입하실 때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안전유희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 받죠?

○어린이대공원管理事業所長 千載敬; 네.

○宋美花 委員; 안전관리는 지금 한 업체에서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어린이대공원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지금 유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法으로 한국유원협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宋美花 委員; 어떤 法이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유기장법인가, 제가 法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렇게 해서 한국유원협회에서 모든 유희시설에 대해서는 保社部에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宋美花 委員; 그러면 유원협회 한 곳이 독점하고 있는 거네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연1회 유원협회에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고, 더 위험성 있는 88열차라든가 이런 것은 자발적으로 비파괴검사라고 해서 정밀한 검사를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주)한국검사개발 여기다 의뢰해서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宋美花 委員; 그러면 (주)한국검사개발도 독점인가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이것은 임의입니다.

○宋美花 委員; 그러면 비파괴검사 하는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세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이것은 유희시설 가지고 있는 이 업체에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법으로 규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혹시 모르니까 한국유원협회에서 받고 그 부분에 더 위험성이 있는, 88청룡열차는 많은 사람이 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1년에 한번 비파괴검사를 받는다 이거죠.

○宋美花 委員; 좋습니다. 제가 유기장법에 대해서 우리 서울

대공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주요시설에 보면 제가 가 보니까 롤러스케이트장에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롤러스케이트장은 왜 빼셨어요? 돈이 얼마 안 되나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롤러스케이트장은 수영장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에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 수영장에 물 빼고 여름에는 수영장을 하고 봄, 가을에는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宋美花 委員; 롤러스케이트장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과 수영장 이 시설에 대해서 입장료 내역서를 주시고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거기는 저희들이 그것을 위탁을 해 주었기 때문에.....

○宋美花 委員; 네, 위탁근거하고 위탁료를 주시고, 테니스장은 이것이 아침 9시부터 밤 7시까지인데요. 테니스장은 보통 저희가 지역에서 보면 아침 일찍 테니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테니스장이 3면이 있죠? 3이라고 쓴 것이 3면이죠?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네.

○宋美花 委員; 그러면 이것은 이용객들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저희들은 이것은 새벽 5시부터 합니다.

○宋美花 委員; 별도로 따로 출입문이 있어서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5시부터 해서 한 면에 얼마 해서 자기들이 표를 끊어서 왔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宋美花 委員; 월별 계약하거나 연별 계약한 것은 아니고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아닙니다. 아무나 개인

이.....

○宋美花 委員; 1회당, 면수별로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네.

○宋美花 委員; 그리고 아까 유모차 빌리는 것, 저도 유모차도 빌려 보고 휠체어도 빌려 보았습니다. 所長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다른 동물원은 동물사육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피로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먼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리프트도 있고 이동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모차하고 휠체어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휠체어도 굉장히 작동하기도 어려운 약간 오래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체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所長님께서 어린이대공원의 장기적인 모습이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저희 어린이대공원은 도심 속에 있는 유일한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유희시설이라든가 롯데라든가 이런 데는 요금도 비싸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시설로 봐야 되겠죠.

그러나 어린이대공원은 저희들이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 주로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시설이 있어서 항상 어린이들이 추억을 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어서 개선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宋美花 委員; 어린이들에게 추억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어린이대공원이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면 그것은 굉장히 피상적이고 어떤 구체적인 전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제성과 공익성 두 부분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시고 하셨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우리 所長님이 말씀하실 때 입장료가 너무 싸다, 서울시에서 좀 조례를통해서 議員들이 해 주면 수입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타 시설은 입장료도 비싸서 그리고 위험하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쓰셨는데 민간시설에서 들으면 이해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안전사고에 대해서 위험하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유희시설물에 대해서 위험하고 안 위험하고는 우리들이 따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놀이에 대한 난이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공포감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극하기 위한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안전도에 있어서 위험하고 안 위험하고는 우리가 서로 상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쪽은 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장료가 그쪽은 비싸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 하면 다른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시설물을 타지 않고 들어가기만 하는 입장료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내부시설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을 만큼의 자부심이라고 그러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대공원에서는 제가 지금 보니까 유료입

장객과 무료입장객이 거의 반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네, 그렇습니다.

○宋美花 委員; 거의 반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지낼 수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많은 적자폭을 계속해서 감내를 해 가면서도 적자폭을 줄이지 못하고 공원을 운영하는 것이 그것도 공무원보다도 대시민서비스도 좋고 경영의 어떤 사고방식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경영기법을 도입할 수 있고 자기 변화도 가져 올 수 있는 전문성까지도 제고할 수 있고, 아까 室長님께서도 말씀하신 전문성을 축적하는 어떤 특수성까지 그렇게 과찬을 하셨는데 그렇게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린이대공원이 적자폭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임이 없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在實; 宋美花 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金寬洙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寬洙 委員; 金寬洙 委員입니다.

제가 작년에 어린이대공원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施設管理公團이 매우 고답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그런 기구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이제라도 경영수지흑자를 위해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했다니까 제 나름대로는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동물사에 동물들이 배설하는 배설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는 73년도에 개원되어서 상당히 委員님들한테 죄송스럽습니다만 정화시설이 미비합니다. 미비해서 일단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는 나갑니다만 완전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동물사 개선하면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투자를 해서 고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金寬洙 委員; 지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와서 경영마인드, 경영마인드 하고 말이죠. 지금 기본적인 모든 시민이나 정책이 환경위주로 가는 정책이 벌써 시작된 지가 언제입니까? 아직도 책임자인 所長께서 부족하다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영개선에 방침이 있고 그러한 것이 우리 委員들한테 보고가 되고 그러한 계획이 업무현황에 나와야 되는데 본말이 전도되어도 한참 전도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이 몇 개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 같고 다른 委員들이 질의할 분도 계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잔디구장이 있죠, 대공원 안에?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네, 있습니다.

○金寬洙 委員; 잔디구장은 지금 현재 所長이 파악할 때 경쟁률이 좀 있죠? 예를 들면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네, 있습니다.

○金寬洙 委員; 있는데, 쉽게 말하면 신청하는 사람들 경쟁률이 좀 세죠?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그렇습니다.

○金寬洙 委員; 그것은 어떻게 판단을 해서 접수순위나 이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잔

디축구장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6, 7, 8, 9, 10, 이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3, 4, 5월은 잔디가 발아시기이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밟았을 때는 사용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6, 7, 8, 9, 10월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청 들어오는 대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우선순위가 예를 들어서 똑같이 들어왔을 때라도 저희들 공원 입장에서 수입이 많은 조기축구 해서 한 10명 이런 사람들보다도 입장표를 끊고 들어오는 단체,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오는 데에다 우선권을 주고 그렇지 않고 들어오는 데 대해서는 선착순으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통상 1주일에 저희들이 두 번 정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金寬洙 委員; 저는 사실 오늘 어린이대공원 업무보고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3대, 4대때 축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린이대공원의 잔디구장을 얻는 것이 마치 큰, 속된 얘기로 백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고 느껴서 평상시 관심사예요. 마침 오늘 업무현황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이용요금이 얼마입니까?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시간당 4만 9,200원입니다.

○金寬洙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3·4·5월은 발아시기라서 그렇고 그래서 6·7·8·9·10월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기에는 잔디가 훼손된다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서 봐줄 사람한테는 봐주고 거절할 때는 그런 이유를 댈단 말이에요. 지금 우기니까 비가 와서 수중전을 하게 된단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솔직한 얘기로 좀 분개한 것은 시민에게 봉사한다, 가려서 봉사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소위 시민에게 봉사하는, 그리고 공무원 집단보다도 좀더 서울시 施設管理公團이 잘할 수 있다고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 사안 사안마다 지금 말씀드린 동물 배설물이라든지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놀이공간으로서 소위 잔디구장 잘 조성해 놓고 평등하게, 기회균등하게, 그리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할 때만이 실질적인 시민에 대한 봉사요, 나름대로 어린이대공원이, 그리고 施設管理公團이 있어야 할 자리다, 이런 것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在實; 金寬洙 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金恩京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恩京 委員; 어린이대공원 소장님께서는 질의드릴 것이 없어요. 저는 다음에 環境管理室長님 공원관리 업무보고 하시면 지도감독권과 관련해서 環境管理室長님께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寬洙 委員; 지난 98년도 잔디구장 이용현황을 자료로 보내 주세요.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네, 알겠습니다.

○宋美花 委員; 저도 아까 사료부분에 덧붙여서 IMF 전부터, 그러니까 96·97·98년도 사료구입비도 자세하게 뽑아 주십시오.

○委員長代理 金在實; 金鎬一 委員님 말씀하십시오.

○金鎬一 委員; 제가 마지막 질의자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어린이대공원 관리소장님께서 오늘 와서 답변하는 자리

가 環境水資源委員會입니다. 환경과 서울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제일주의로 하는 것이 우리 環境水資源委員會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것 중에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도 소형소각로를 지금은 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해 보기에 별로 문제가 없는데 주위 민원이 많아서 중단했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참 적절하지 못한 답변입니다.

오늘 어린이대공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니까 제가 더 긴 말은 안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소각로 있다고 그래서 아무 것이나 태워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비산재라든가 다이옥신 이런 것이 생산된다면 주위에 많은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배설물 얘기를 그냥 지금 제대로 시설을 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배출을 했다, 이것 環境管理室에서는 廢棄物管理課 소관입니까, 環境企劃課 소관입니까, 大氣保全課 소관입니까? 어디예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오염 자체가 수질, 토양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水質保全課가 제일 밀접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시설투자는 우리 公園綠地課에서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를 소상히 건의를 받아서 투자에 힘을 쓰겠습니다.

○金鎬一 委員; 일반시민들한테는 환경을 오염시키면 안 된다, 뭐뭐 잘못하면 벌금이 얼마다, 그래서 계속 계고장도 보내고 출두요구서 아니면 벌금 다 물리는데 어떻게 施設管理公團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대공원의 배설물을 그렇게, 결국 강하게 표현을 한다면 무책임하게 버렸다 이거예요. 그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물사에서 나오는 분뇨는 사료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꽃묘장이 있는데 그 꽃묘장에 발아를 시켜서 일정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 1년에 40~50만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퇴비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퇴비로 쓰고 있고요. 단지, 거기에서 나오는 소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설이 더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金鎬一 委員; 정화시설을 만들어야죠?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네.

○金鎬一 委員; 앞으로 정화시설을 해서 누구나 규제를 받는 사람은 공공기관이든 개인이든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環境管理室長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지금 금년도에도 동물사에 대한 개선사업을 29억원 정도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비한 점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金鎬一 委員; 제가 알기로는 28억원인데 29억원이라면 1억 원을 증액시켰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끝자리를 좀 올렸습니다.

○金鎬一 委員; 그래서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어차피 지금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우리 서울시민한테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알겠습니다.

○金鎬一 委員; 소각은 앞으로 절대 안 됩니다.

○어린이대공원管理事業所長 千載敬; 폐지시켰습니다.

○金鎬一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在實;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어린이대공원과 여미지식물원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린이대공원도 그렇고 여미지식물원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배정도 하고, 또 업무상 같은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지도 못하고 질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꼭 우리 식구가 밖에 나가 있는데 언젠가 들어올 식구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 오늘 업무보고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렸었고, 또 우리 소장님들은 긴장된 마음도 섞여서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보고를 들으면서 다소 여러 가지로 미흡했던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어린이대공원 소장님께서서는 상당히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하여튼 보기 좋습니다. 오랫동안 근무해서 업무를 파악하고 있어서 여유가 있으신지, 안 그러면 자립도가 높아서 그런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서울대공원과 비교했을 때 서울대공원 소장은 온 지도 얼마 안 되셨고 자립도도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비해서 많이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같은 서울시 산하의 공원이기 때문에 서로 정보교환을 해서 서로가 좋은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미팅의 시간을 자주 가져서 서로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자립도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보면 입장료가 서울대공원과 어린이대공원이 틀리단 말입니다. 상당히 많이 틀리고, 또 무료입장도 많고 한데 어떤 것이 좋은지 본위원은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위치가 틀리고 여러 가지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을지는 서로 많은 의견교환을 해 봄으로써, 이것이 요금이 높아서 이익일지 낮아서 이익일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도 얻게 되고 할 것 같아서 그런 정보교환을 많이 해서 우리 서울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어린이대공원과 여미지식물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環境管理室 소관 환경보전 및 공원녹지분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9時 46分 會議中止)

(20時 42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鍾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정회시간중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오늘은 環境管理室 업무보고와 질의만 하고 내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環境管理室長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環境管理室長 都明正입니다.

존경하는 金鍾來 委員長님, 그리고 環境水資源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기묘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常任委員會에서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녹색서울 만들기를 위해서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한 해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또 구조조정이라는 행정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을 해 왔습니다.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의 강화와 함께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고,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인근 자치단체가 공조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면서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공원확충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서울을 만든다는 기본방향하에 이어서 보고드릴 여러 가지 시책들을 준비해서 전 직원이 정성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성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환경, 공원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報告)

環境管理室 業務報告(環境保全, 公園綠地分野)

(뒤에 실음)

.....

이상 환경보전분야와 공원녹지분야에 대한 금년도 업무계

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鍾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辰永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柳辰永 委員; 柳辰永 委員입니다.

99년도 서울특별시의 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한 環境管理室 소관에 있어서 차량정비사업소는 99년도 7월중 민간위탁으로, 4개 하수처리사업소 중 1개소는 2000년에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環境管理室長은 環境管理室 소관 조직과 인원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과 검토내용, 그리고 민간인 위탁사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타당성 평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環境管理室長은 한강보전사업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상수원 한강수질개선, 환경보전기반 구축 등 3대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첫째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있어 99년 예산은 천연가스사용 시내버스 도입으로 20억 7,500만원, 대기오염 저감사업으로 10억 6,000만원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추진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료 14페이지 상수원 한강수질개선사업은 깨끗한 수돗물 생산보급으로 천백만 시민의 수질신뢰도를 평가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노후 배급수관 200km 개량비 400억원, 그 다음에 노후 배수관 25km 개량비 300억원, 정수장 배수지 확장 1,205억 4,200만원, 선진국 수준 수질검사항목 확대 13억 7,200만원, 배수시설 가압장 205개소, 배수지 23개소의 개량비 47억 8,200만원, 깨끗한 원수확보 89억 4,700만원, 노후

상수도관 이설비 49억 9,900만원 등 2,106억 4,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깨끗한 원수확보사업에 있어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157.34km<sup>2</sup>에 대한 관리개선방안과 환경기초시설 하수처리소 22개, 간이오수처리장 8개소, 축산폐수 11개 등 41개 개선비 56억 6,800만원,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157.34km<sup>2</sup>의 주민지원사업 출연금 19억 7,500만원의 집행사유별 용도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잠실상수원 보호구역 6.45km<sup>2</sup>에 대한 수질오염 감시관리비 1억원 및 수질오염 측정소 장비교체비 8,400만원, 수질오염 측정소 1개소 설치비 3억 2,000만원에 대한 세출예산 집행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로 한강수질오염을 살펴보면 BoD 기준으로 볼 때 팔당상수원은 92년 1.1ppm, 93년 1.2ppm, 94년 1.2ppm, 95년 1.3ppm, 96년 1.4ppm, 97년에서 98년 1.5ppm으로 계속 오염이 증가되고 있는데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지도감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잠실수중보 6.45km<sup>2</sup> 구역은 92년 1.8ppm, 93년 1.9ppm, 94년 1.9ppm, 95년 2.0ppm, 96년 2.3ppm, 97년 2.6ppm, 98년 2.6ppm으로 계속 오염이 증가되고 있는데 잠실수중보 구역은 서울特別市 관할구역으로 상수원 오염방지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데 오염이 증가되는 원인과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리시 도시시설개발에 따른 폐수량 유입증가와 장자못을 비롯한 팔당 하류 서울잠실수중보 구간에 유입되는 왕숙천 등 13개 하천의 잠실수중보 하천오염도 ppm은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 13개 하천 유입수 오염실태와 특히 구리시

에서 유입되는 폐수유입 개선대책을 긴급히 실시하여 잠실수중보에 유입되는 구리시 폐수유입을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선추진실적과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네째로 팔당하류 상수원 수질오염 행위단속의 98년 단속실적과 분석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로 99년 3월 2일 오전 2시 47분 강원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오월교에서 경유 2만L를 싣고 화천군부대로 가던 인천시 소재 삼영상사 소속 경기 93자 5572호 16톤 유조차 운전사 40세로서 이재실씨가 다리 난간을 들이박고 25m 아래 춘천시 상수원인 춘천호로 추락하면서 8,000L가량의 기름이 유출되어 한강상수원의 기름오염이 극심하였고 사고지점 4km 아래 춘천시 상수원인 용산취수장에서 식수오염 걱정은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의 상수원은 북한강 소양호 27억톤, 화천댐 춘천호와 남한강 충주호의 29억톤의 방류수가 모이는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소재 팔당호 4만 4,000톤과 팔당호 방류수인 잠실수중보 1,060만톤에 의존하고 있는데 만일 팔당호와 구리시 시계에 있는 강동대교와 잠실대교에서 독극물 탑재차량 또는 유조차가 전복되는 경우 중대한 위협적인 상수원 오염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맑은 물 공급에 관한 결의안을 제안하여야 할 의회 입장입니다만 우리 市長은 팔당대교, 강동대교, 잠실교, 천호대교에 대한 독극물차량, 유조차차량 통행제한을 비롯한 상수원 오염방지 대책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선 이상 질의 드리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鍾來;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車星煥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車星煥 委員; 저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公園綠地管理事業所에 대해서 질의를 이미 드렸는데요. 사업소 업무보고때 시원한 답변이 안 나와서 環境管理室長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環境管理室 산하에 公園綠地課가 있습니다. 公園綠地課가 있고, 또 산하에 사업소가 公園綠地管理事業所가 있습니다. 또 이 公園綠地管理事業所 산하에 公園管理事業所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호동공원과 여의도공원이 98년도에 개장 이후로 그 두 공원을 관리하게끔 두 개 사업소가 또 다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무의 효율성, 또 예산의 효율성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특별히 필요한 사업소 시설이 개장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자세하게 내일 답변시에 타당성, 어떤 경영평가가 내려졌는지 아주 소상하게 자료에 근거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존이 높은 지역을 집중 단속해서 한다고 했는데 하절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강화 편에서 집중단속한 사례가 있는지, 지역하고 사례하고 그것도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한강환경감시대가 발족되어서 감시인력이 54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도 실적자료와 함께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산업폐수 지도단속이 있는데 4,831개소, 자치

구별로 두 개 상시단속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위반사례가 있는지, 위반했다면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료를 먼저 주시고 내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미보상 공원용지가 항상 여러 가지 민원도 많았고 논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향후 보상계획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추정보상비가 약 8조원이라고 하는데 미보상 공원용지가 실제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20년 이상된 것이 121개소가 있는데 지금 보상이 우리 서울시에서 나가는 것이 20년 이상 되지도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먼저 보상을 받아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근 3년 내, 3년 전부터 미보상 공원용지에 대해서 보상한 자료, 그리고 99년도 예정하고 있는 자료와 함께, 그 타당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鍾來; 宋美花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美花 委員; 첫번째로 서울시 ISO 14001 자격인증취득 이것을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실장님, ISO 14001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기대효과 해서 조금 개념적으로 나열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에 환경보전기반 구축 해서 맨 위에 개발위주의 시정운영해 왔던 것에서 이제는 주요시책에 대한 환경성을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우선 고려하고 점검해 나가겠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 뒷부분을 보면 이 말씀이 어디하고 맥이 닿아 있는지 제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굳이 찾겠다고 하면 녹색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CSD를 설치한다는 것밖

에 맥을 이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 CSD가 지금 제가 녹색위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CSD의 입장이 사실 서울시에서 주요시책에 대한 환경성을 검토하는 그런 위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녹색위에서도 CSD에 대한 여러 가지 위상문제, 관계정립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 CSD하고는 별개로 주요시책에 대한 환경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성 검토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柳辰永委員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환경문제가 이번에 춘천 상수원보호구역에 유조차 추락한 것 그것 여러 가지로 부처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규제해야 될 것들이 허술해져서 유조차량 통행이 방치되고 이렇게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아까 보니까 대기문제에 대해서도 수도권 대기환경 규제지역에 따른 종합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논의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문제에 대해서 광역단체들끼리 논의라든가 협의사항, 협의체 구성한 것들,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소규모 폐수배출시설 기술진단 실시에 세차장, 병원 등 125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진단을 실시한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지도단속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밑에 진단내용

해 놓고 방지사설 운영방법, 부적정시설 개선 등 이렇게 해 왔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기술진단을 어떻게 실시해서 업체에 어떻게 감독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토양오염 측정망, 그때 예산할 때 봤습니다. 그런데 토양오염 측정망을 120개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 그때 저희가 즉 보니까 지적했던 것처럼 학교라든가 관공서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토양오염 측정망에 대한 측정지점에 대한 선정을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정참여공모사업에 제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은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내일 말씀을 드리겠고요.

20쪽에 자연보호단체를 재정비 유도하는 등 시민활동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자연보호단체를 재정비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 環境管理室에서 어떤 의미로 재정비를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재정비한다는 작업이 어떤 차원의 작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시민기념식 수안내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민원사항은 없었는지, 시민과의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혹시 민원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지금 운영한 지 몇 개월 지났죠? 작년 10월부터 운영했나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10월에 하다가 겨울철에는, 일단 11월 말에서 12월까지 정리를 하고 1월에는 안했습니다. 2월

1일부터 했습니다.

○宋美花 委員; 그래서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주된 민원사항이 어떤 사항들이 있었는지 몇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1월에 회기가 없을 동안에 우리 環境管理室에서 자료를 주셔서 제가 잘 받아봤는데 그때 시립대 이경재 교수가 난지도에 대해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여기 난지도 희망의숲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 읽기로는, 그 자료에 의한다면 난지도는 그냥 자연서식지로 할 수 있도록 자연상태로 내버려두는 것이 어쩌면 최적의 방안일 수도 있다, 우리가 자연생태를 그대로 볼 수 있는 한 방안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보니까 지금 여기에 나무를 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고려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어린이대공원 오늘 환경공원 조성에서 우리 서울시 環境管理室에서는 환경주제길, 자연탐방교실, 동물원 개선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환경주제길과 자연탐방교실 이렇게 쓰셨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는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보고에서는 빠졌는데 우리 環境管理室에서 어린이대공원의 환경주제길과 자연탐방교실을 이렇게 주된 사업으로 보고하시는 까닭과 그 업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鍾來; 李松竹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松竹 委員; 李松竹 委員입니다.

7페이지 맨 밑에 산림환경 보전 및 공원이용 증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 도입 건인데 충전소 3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가스주유소와 약속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느 지역을 안배를 하셨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약속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또 언제 운행을 할 것인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겨울에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도심 한가운데에서 폐유 등 폐기물을 길거리에서 소각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 교통순경이 지나가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을 앞으로 일일이 감시관이 밤낮없이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교통경찰도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졌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악취모니터요원 구성, 민간감시체계 구축 250명, 자치구가 10명이라고 했는데 민간감시체계 구축이면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그런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소음배출시설 및 이동행상 확성기 등 이동소음원 관리강화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름철에 보면 아파트 같은 데는 위에서 에어컨을 밤새도록 틀어서 밑에서 잠을 잘 수가 없는 심야에 아주 핑음 같은 소리가 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서 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이 관리기금을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가 같이 공동 조성하는 것인지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한강환경감시대 지원이라고 해

서 감시인력 54명, 차량 6대 지원이라고 했는데 98년도에도 6대를 이미 지원했는데 99년도에도 또 지원을 할 것인지 답변 주시고요.

16페이지 물관리대책본부 운영에 대해서 구성에 11명인데 위원장 행정1부시장, 또 위원에 관련국장, 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위원이 이미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 주시고요.

또 16페이지 맨 밑에 보면 검사장비 보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제가 상식이 없어서 그런데요. 토양오염도 검사장비 및 수질검사장비 보강이라고 했는데 그 장비가 토양오염도 검사장비와 수질검사장비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재개발 30만㎡ 이상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고 그 외에 서울시 관내 평가대상사업이 자그마치 46건 2.5%나 되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 왜 제외되었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고요. 그것도 앞으로 제외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생태계 보전지역에서 포획 등 행위 제한 및 출입제한조치로 되어 있는데 그 조치도 좋지만 처벌조항이 있어야 되겠는데 처벌조항이 없으면 아무래도 조치가 별로 역할을 못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처벌을 한다는 조항을 넣었으면 하는데 견해를 답해 주시고요.

또 그 밑에 보면 나무뿌리 흙덮기 범시민운동 전개 이랬는데 아무래도 범시민운동 하면 무슨 단체, 무슨 단체 하면 활동비를 줘야 되는데, 20페이지입니다, 요즘 보면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데가 없어서 유흥장소까지 가서 청소를 해 줄 정도로 청소년에게 문제되는 곳을 보내는 어른도 잘못이 있지만 우리 행정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나무뿌리 흙덮기 범시민운동 전개를 학생봉사활동으로 유도를 하면 아이들이 자연을 사랑하고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室長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보면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에 99년도 숫자가 227로 나와 있는데 이 앞에도 제가 잘못 보는 것인지 모르지만 4페이지에 보면 생명의 나무 심기 99년도 293으로 나와 있습니다. 숫자가 제가 잘못 오해를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것은 죄송합니다. 답변이 아주 간단한 것이 되어서, 앞의 293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李松竹 委員; 4쪽에 있습니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李松竹 委員; 4쪽 맨 밑에 보세요. 생명의 나무심기 99년도 293 숫자가 나와 있고 25페이지에는 99년도 227로 나와 있어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그것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98, 99, 2000, 2001, 2002 이것은 그 해 연도 사업이 아니고 누계를 해서 2002년까지 천만 주가 된다, 그렇게 해서 98년도 실적하고 99년도 계획 숫자하고 더한 것이 293만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27만주거든요.

○李松竹 委員; 그것은 선뜻 이해가 안 갔었어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李松竹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에 보면 한강변 수림대 조성 27개소 1만 8,000주인데 한강변에는 나무심기가 조건이 까다로워서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장소에다가 수림대 조성을 할 것인지 지역을 밝혀 주시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서대문 독립공원 녹지확충 3,425평에다 7,000주를 심는다고 했는데 제가 한번 그쪽을 갔더니 실직자들이 거기에서 데모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다 나무를 심고 이 나무가 실직자들의 쉼터로 지금 변해 가는데 그 나무가 살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페이지에 보면 걷고 싶은 맨발공원 조성이 있는데요. 보라매공원과 용산가족공원에 각 1개소로 할 예정인데 1억 8,300만원이나 들여서 공사를, 저번에도 제가 한번 공원에 질의를 했는데 室長님께서 맨발공원 조성이 두 지역에 정말 여의도공원처럼 콘크리트에다가 자주색 자갈을 박아서 고정을 띄워 놓을 것인지, 맨흙 위에 놓아서 사람이 밟으면서 실제로 걸을 수 있는, 또 박아 놓으면 발이 아파서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신발을 신고 걸어 봐야 아무 효과도 없고 신발을 벗고 정말로 시민들이 건강한 걸음걸이를 하려면 맨 흙 위에 자갈을 놓아야만 제 구실을 하는데 전 시적인 효과를 노리려면 1억 8,300만원은 낭비다, 지적을 하면서 우리 室長님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鍾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判吉 委員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判吉 委員;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으로 주로 버스에 치중을 해서 여기는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 배출가스 주범은 대향화물차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내를 주·야간으로 횡행하고 있는 화물차의 대수를 파악하고 있는지, 또 차

종과 대수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운 일이 있는지 이것을 좀 묻고.

다음에는 道峰區 倉5洞에 가면 지하철이 지상으로 올라온 대목이 있습니다. 倉洞驛 부근에 그런데 그것이 바로 아파트 2~3m 거리에서 땅으로 솟아올랐는데 거기는 진동과 분진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주야로 잠을 못 자고 또 세탁을 해서 널 수도 없고 심지어는 TV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 데 대한 무슨 보고를 받거나 조사를 한 일이 있는지, 없다면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좀 세워 줄 것인가, 거기가 주공2단지 한 2,000세대 되는 단지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공해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시급히 대책을 세워 달라고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나 연구를 해 본 일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道峰區 倉4洞에는 동아 청솔아파트, 쌍용아파트 해서 한 4,000세대가 있습니다. 한 30m 옆으로 의정부로 가는 철길이 있는데 아침에는 5분 간격으로 차가 질주를 하고 낮시간에는 10분 내지 15분 간격으로 차가 한 대씩 다니는데 거기 는 소음측정이 dB로 해서 소음공해 초과를 했습니다. 초과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가 이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조치를 해 줄 것인지 묻고요.

그 다음에 한강수질개선이라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한강수질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漢江管理事業所에도 물어 보았습시다만 현재 한강변에서 제일 오른쪽에 뚝섬쪽으로 건너편쪽에 대형배를 만들어서 띄워 놓고 대형식

당을 경영하고 결혼식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혼식장 같은 데는 일시에 2,000명, 1,500명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고 온갖 오물이 한강으로 투척이 되고 이러는데 왜 이런 데는 그대로 방치를 하고 허가를 해 주는가.

그래서 계약을 한 자료와 일체의 서류를 좀 보자고 했더니 漢江管理事業所長이 거기 課長을 시켜서 오늘 가지고 왔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분히 협박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언제 계약했느냐,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계약입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금년에 계약을 하고 내년에는 계약을 안해 주면 이것이 없어질 것 아니냐 했더니 그러면 서울시에서 전부 변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계약서에 그렇게 써져 있느냐 그랬더니 계약서에는 안 써져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발상이더라고요. 그런데 環境管理室에서는 수질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런 일은 어떻게 처리를 해 줄 것인가, 그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폐수관리를 강화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배출되는 생활폐수를 비롯해서 온갖 폐수가 3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개 하수처리장에서 100% 정화를 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여러 가지 공해를 예방하고 앞으로 관리를 강화해서 환경을 보전한다고 했는데 지금 소음규제는 어느 정도 수준에까지 갔는지, 기계는 어떤 기계를 도입해서 측정을 하시는지, 또 서울시내 측정할 곳이 어느 어느 곳에 한정이 되었는지, 이동식으로 하는지 그 실태를 명확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연보호시민운동이 여기 많이 열거되었습니다. 과연 저는 현장에서 느끼기를 자연보호시민운동이 구호에

만 그치고 있고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운동방안 등을 강구해 볼 용의는 없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市가 관리하는 각종 공원의 수종이나 나무숫자 등 정확한 자료가 현재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조례 만들 때. 그런데 이것이 해방 후 지금까지 5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서 市가 관리하는 공원에 이런 것조차 조사가 안 되어 있는지 이것을 묻고요.

또 앞으로 용역을 시켜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된 이유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 이것은 일선에 관계공무원이 있고 모든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어째서 지금까지 못했는가,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민선2기에 1000만그루 나무 심기, 아까 오늘도 많은 말을 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가 나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는 변두리도 아니고 市 중심부에 인접해 있는 산 같은 데 나무를 베어내고 계속 골프연습장 같은 것을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주변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얘기인데 그러면 골프연습장 한다면 수많은 나무를 베어 내고, 수십년 수백년 자란 나무를 베어 내고 그리고 거기다 골프연습장을 만들고 또한 쪽에서는 수천억을 들여서 나무를 심고 이것은 이윤배반적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수궁이 갈만한 대답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쟁점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여의도공원의 매점임대에 있어서 당 위원회 안대로 지난번에 경쟁입찰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돌아가서서는 수의계

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경을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왜 위원회에서 하는 말이 돌아가서는 다른가,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 위원들이 아, 그렇구나 수공이 가는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鍾來; 수고하셨습니다.

金寬洙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寬洙 委員; 지금 밤 10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집행부와 서울시의원 간에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高建 市長 말씀대로 수레의 양바퀴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데 대해서 경의를 보내고요.

우선 이것 하나만 일문일답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가로 정비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구 자치예산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예산이 보조되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구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지치기에 관한 지침은 우리 市 條例로 규정이 되어 있고, 세부적인 지침이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金寬洙 委員; 그러면 가지치기를 한 가지가 어디로 처분되고 있는지 그것은 아시고 계십니까? 폐기물관리 분야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제가 묻습니다.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일단 가지치기 하는 업자가 가지치기 된 잔재를 전부 파쇄해서 매립이나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에 보내거나 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 파쇄된 나무를 재활용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金寬洙 委員; 그러니까 25개 구청에서 각 구청별로 가지치기한 가지 처분하는 실태를 자료로 해서 내일까지 우리 위원

들한테 전부 하나씩 보내 주실 수 있어요? 그 자료를 취합해서 보내 주세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寬洙 委員; 그리고 지금 업무현황보고에 보면 주된 대기 오염의 원인이 수송에 의한 것이 85.7%를 점유한다고 했는데요. 혹시 環境部에 건의를 해서 지금 그것은 경유를 연료로 하기 때문에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유값이 휴발유값 대비하면 굉장히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유값을 인상을 해서, 아까 우리 金判吉 委員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화물차, 버스, 이런 경유를 쓰는 차량들이 우리 서울 시내에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유를 억제하고 나름대로 시설비를 좀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는 몰라도 천연가스를 버스에는 도입을 한다고 했는데 화물차 같은 경우도 이익발생 하기 위해서 자가용도 있고 영업용도 있겠지만 자금을 융자해 줘서라도 경유값은 올리고 천연가스로 대체하는 그러한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는지, 또는 環境部에 경유값 인상에 대해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업무현황보고에 보면 수질개선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할애되었습니다.

이 업무는 上水道事業本部 또는 漢江管理事業所 이렇게 업무의 영역이 중복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중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서로 상대방에게 미루게 되면 더 실질적인 업무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합조정 내지는 주무부서는 과연 어디일까, 그리고 上水道事業本部나 漢江管理事業所, 環境管理室에서 수질개

선이나 수질조사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관계부서끼리 어떤 업무연락 내지 협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세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편리한 화장실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신문에서 우리 서초구청인가 하고 경기도 어떤 시에서 카페식 화장실 이런 기사를 보고 제가 제 108회 임시회때 화장실 이야기를 하니까 화장실의원이라는 소리도 제가 잠깐 야유 비슷하게 들었습니다만 그런 움직임들이 본위원의 조그마한 시정역점이었습니다만 확산된다는 그러한 인상을 받고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環境管理室에서도 역시 화장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계획을 입안한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서울 길거리를 거닐면서 화장실 시설 자체를 개량하고 문화적 공간처럼 잘 확대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용변을 필요해서 느낄 때 빨리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화장실 문화를 우리 環境管理室에서 개방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것도 시민운동 차원에서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것은 피부적으로 시민의 불편을 자아내는 그런 일 들입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전부 자물쇠로 잠가놓고 정신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말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시민 또는 국민의 일체감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바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적어도 우리 環境管理室에서 주관을 해서라도 우리 서울시 자체만이라도, 다른 지방은 거의 그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발 화장실문을 피차간에 잠그지 않는 이런 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해 나갈 그런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000만그루 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회의벽두에 부시장도 나오시고 1,000만그루심기조례안이 통과는 되었습니다만 1,000만그루 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면을 지적했던 본위원으로서는 지금 나름대로 아직도 대단히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지금 항간에 1,000만그루 심기를 하는데 그야말로 전시행정적 구호성 정책, 그리고 하부 지방자치구에서 서울시의 방침이나 시장의 공약 때문에 적절한 장소, 예를 들어서 짜맞추기식 식수사업이 되고 조정사업이 될 여지가 많다, 예를 들면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꿰맞추는 식의 그런 불편이나 불만을 얘기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실지는 1,000만그루를 심을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올해 227만주 심기를 공공부문, 민간부문 나누어서 하는데 과연 실효성 있게 이것들이 실현될 수 있는가, 이 세세한 기본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鍾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金恩京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恩京 委員; 어린이대공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것은 제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먼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대공원이 사업계획 1년 예산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받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으로 집행을 하죠?

그리고 어린이대공원의 수입은 세수로 일괄 잡히고 어린이대공원의 지출은 세출로 일괄 처리하는 형태죠?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네.

○金恩京 委員; 그런데 사실은 어린이대공원을 위탁관리하는 곳이 공단이란 말입니다. 공단이라는 것이 사실 별도의 법인 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세입세출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이것을 잠깐 읽어드리겠는데요. 이것이 86년도에 처음 공원을 위탁관리 할 때의 서류입니다. 공원위탁관리계획이 처음에 하는 이유가 공원의 경영개선으로 독립채산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경영관리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이용시민의 서비스를 향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공단이라는 것이 하나의 법인으로서 독립채산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공단을 설립할 때 서울시에서 애초에 250억원을 투자해서 공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위탁료를 연간 얼마를 책정해서 주더라도 그것 자체가 독립채산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만들고 그것을 세입으로 잡고 또 지출을 하고 이런 형태로 되고 있는지, 이것이 관계법과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얘기하기에 위탁료를 10억원에서 35억원으로 조정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답변해 주셔야 될 것이 어떤 근거로 어떻게 심의를 하셨고, 누가 심의를 하셨고, 근거가 무엇인지 이것을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위탁료를 받으면 위탁료하고 수입하고 해서 자기들이 독립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되는지.

또 하나 이것과 관련해서 공원이 공단이기 때문에 施設管

理公團이 회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를 받아서 회계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문제가 우리 청소도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부분에서 다시 얘기가 나오겠지만 청소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따로 회계보고가 되는지.

우리는 위탁을 한 건별로 주는 것이거든요. 施設管理公團이 전체적으로 수입지출이 어떻게 되든 간에 사실은 環境管理室 소관에서 위탁한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지관계를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고를 받으시고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대공원의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아까 어린이대공원 소장이 나오셔서 다른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질책을 많이 받았습시다만 저는 그 대부분은 사실은 環境管理室 소관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위탁을 준 일이고, 위탁을 준 것에서 어떤 수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당연히 위탁주체인 公園綠地課에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지금까지 해 왔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각 예산이 어떻게 되고, 각 해에 수입지출이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사업계획이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環境管理室에서 소상하게 보고가 지금까지 되었어야 됴에도 보고되지 않았습시다.

그것은 사실은 지도감독권의 해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의견을 일단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파악하시기로 위탁목적에 적합하게 경영이 되고 있는지 판단여부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원관리라는 것이 사실은 주면서 여기에 전문성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대공원이 공원을

운영하는 전문성을 정말 충분하게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공원녹지 관련된 업무가 너무 많이 나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公園綠地管理事業所와 本廳과의 관계도 지적했습니다만 어린이대공원의 경우에는 더 심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公園綠地課의 업무 전체의 통합성이나 계획성 이런 것과 일관성을 갖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어린이대공원의 운영이 서울시 環境管理室이 공원녹지 관리라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어느 정도 통합성을 가지고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도에 동물사로 해서 사업투자 계획이 올라왔는데 이런 투자계획이나 사업계획을 실제로 지금 어디에서 수립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環境管理室 입장에서 볼 때 어린이대공원의 공원관리가 타 공원과 비교해서 볼 때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環境管理室長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경영문제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室長님은 계속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논의되었습니 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環境管理室은 어떤 의견을 개진을 하셨는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이 사실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을 다른 형태로 운영하자면 직영을 해서

사업소 형태로 가는 방안이 하나 있을 테고,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공단이 다른 일반업체와 경쟁을 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두번째 방법이 보장되지 않고 공단에게 주는 것은 사실은 경영개선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도 죽 보았습시다만 한번 위탁을 주면 별 일이 없으면 계속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안전한 일이에요.

다시는 위탁관계가 흔들릴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경영개선을 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왜 지금까지는 경영개선을 안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경영개선을 하겠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그럴 필요성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계속 위탁비 주고 예산 짜면 다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공단으로 위탁하면서 경영개선을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경영개선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공단도 다른 곳과 경쟁할 수 있는 체제가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에서 이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는 條例나 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손질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시다만 대공원에서 공사를 하고 그 감사를 公園綠地管理事業所에서 했습니다. 조례상에 지금 관리감독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조례에서 감사인가요, 감사부분에 아마 지정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이것은 수사가 종결되어 봐야지 알

일이어서 室長님 답변 못하시겠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環境管理室長님으로서 청렴도 문제에 대한 관리, 책임 이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검사 부분에 대한 업무가 청렴도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 것인데 왜 문제가 생겼는지, 그래서 앞으로의 대안은 뭘 가지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대공원에 관해서는 우선 이것으로 하고 일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강화라는 항목에서 신규제작 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실제로 휘발유를 쓰는 자동차하고 비교했을 때 오염수준은 어떻습니까? 우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이렇게 강화하면 휘발유 쓰는 자동차에 비해서 오염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기술적인 사항이니까.....

○大氣保全課長 張興淑; 지금 휘발유차에 대해서는 지금 2000년 또는 2002년까지 環境部에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미국이나 일본의 기준하고, 비록 일본의 95년도라든가 97년도 또는 미국의 97년도 이 정도 수준이지만 2000년, 2002년 기준 시행예고된 것을 보면 그것은 선진국 수준입니다. 다만, 경유차 3.5톤 이상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비교를 해 보니까 미국은 5.4g/kwh인데 우리 나라는 2000년 기준이 6g/kwh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예고된 기준이 선진국 수준이 아닌 것은 강화를 해 주도록 금년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金恩京 委員; 건의한 내용은 따로 하나 주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 大氣保全課長 張興淑; 그것은 금방 드릴 수 있습니다.
- 金恩京 委員; 제 질문 요지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면 그 강화된 기준이 일반자동차, 휘발유를 쓰는 자동차의 동급, 동량 그런 휘발유를 쓰는 자동차의 배출기준에 비해서 어떠한 겁니까.
- 大氣保全課長 張興淑;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보고요.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 金恩京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일반 휘발유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하고 강화된 기준, 경유차량의 강화된 기준하고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오염이 많은가요. 그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가요?
- 大氣保全課長 張興淑; 강화된 것을 서로 비교한 것도 경유차가 많습니다.
- 金恩京 委員; 경유차가 많죠?
- 大氣保全課長 張興淑; 네.
- 金恩京 委員; 좋습니다. 경유차가 많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大氣保全課長 張興淑; 물론, 매연이라든가 질소산화물이라든가 항목이 경유차하고 휘발유차하고는, 그것은 매연이 없습니다.
- 金恩京 委員;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좋고요.
- 그래서 저는 어쨌든 경유차량 중에서 불필요한 특혜를 받고 있는 부분이 지프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프차의 경우 사실은 굉장히 불필요한 특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시세부분으로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찾아보았더니 시세에 대한.....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연도별로 올려 주고 있습니다.

○金恩京 委員; 그런 것들의 권한이 아직은 市쪽에 완전히 와 있지가 않아서.....

○環境管理室長 都明正; 2000 몇 년도에 가면 같은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지프차에 대한 세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金恩京 委員; 지프차에 대한 세율을 다른 것과 같은 정도로 올리는 것을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분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염을 많이 배출하는 쪽에 약간의 벌칙이 되는 정도의 부담을 주어야지만 그런 차들이 안 쓰인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서울시는 전체적인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검토를 하셔서 그 내용을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무단소각행위 단속강화 부분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소형소각로에 대한 대기부분에서의 단속권한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간담회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廢棄物施設課에서 소형소각로를 설치하고 그 쪽에서 점검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대기과에서 대기라는 입장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지, 단속기준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소형소각로 문제는 점차 폐지하고 앞으로는 설치를 못하게 하더라도 지금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은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하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수도권지역 서울시내의 먼지부분, 미세먼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해서 봄철이 되면 대기과에서 구청으로 굉장히 여러 번 공문을 보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과 굉장히 역행하는 하나의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폐자재의 재활용 관련문제와 연결되어서 건축폐자재의 재활용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폐자재를 지금까지 서울의 도심 내에서 파쇄할 수 없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인근 지역으로 운반을 해서 그 곳에서 파쇄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부에서 도시 내에서 파쇄할 수 있도록 하는, 재활용을 강화한다는 입장에서 이런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쪽에서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검토하셨다면 대책이 어떤 것인지, 실제로 이런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음발생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소음발생원의 관리강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사실 이동행상 확성기 이런 문제가 소음의 주된 원인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적은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건설공사장에서 생활소음 관련해서 사전신고 의무화를 한다고 하는데 사전신고 의무화가 소음을 줄이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大氣保全課長 張興淑; 지금 답변 드릴까요?

○金恩京 委員; 네.

○大氣保全課長 張興淑; 건설공사장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연 3,000평 이상의 토목공사라든가 또는 골재공사, 일정한 규모를 정해 놓았습니다.

정해 놓고서 향타기라든가 향밭기라든가 여러 가지 8개 소음을 많이 배출하는 기계를 사용할 때에는 사전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신고내용에서 공사기간은 얼마고 또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해서 신고를 함으로써, 3일 전인가 그렇습니다, 신고를 함으로써 행정관청에서 이행여부를 감독함으로써 건설공사장의 소음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金恩京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그 소음을 방지하는 장치가 무엇이 있냐고요. 소음을 어떻게 방지하느냐고요.

○大氣保全課長 張興淑; 사실 대규모 건설공사장에서 소음을 크게 배출하는 기계를 사용할 때 아주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은 참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소음기계를 활용한다든가 또는 작업시간을 남 잠잘 때라든가 책볼 때 줄인다든가 또는 방음벽을 설치해서 인근주민들이라든가 피해를 최소화한다든가 그런 사후적 수단이 되겠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제어할 수단으로서.....

○金恩京 委員; 완벽하게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는데 사실은 거의 공사장에서 나오는 소음에 대해서는 지금 방지시설을 만들 수가 없는 입장 아닙니까? 거의 주택가에서 공사를 하거나 그러면 그 소음에 대해서 고스란히 주민이 견디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大氣保全課長 張興淑; 사실입니다.

○金恩京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여기도 써 놓으셨지만 사실은 이것이 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있는 도로변의 공동주택 방음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은 사실은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환경문제에 있어서 오염자 부담원칙에 역행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철로변에 있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철로변에 짓는 아파트가 소음방지시설을 해라, 그것을 의무화하면 사실 공사비는 다 주민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공동주택에 방음을 해서 이중창을 만들거나 방음새시를 만들어라, 이것은 사실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지 오염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단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하셔서 다른 보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하절기 수질관리대책 부분입니다. 매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고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실제로 수질관리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자면 각 區廳이나 이런 곳의 하수시스템부터 수질관리하는 곳에서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수시스템이 얼마나 잘 가동되고 있느냐, 분류하수관이 얼마나 잘 가동되고 있느냐, 각자의 오염원이 위에서 어떻게 통제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관리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내려온 것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과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은 제가 보기에 는 규정대로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수처리장에 들어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량처리장도 사실은 처리할 수 있는 하수가 모자랄 정도이기 때문에, 왜 하수가 모

자라느냐에 저는 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분류관로가 그만큼 충실하게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이 더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권한이 이쪽으로 오지 않으면 하수문제에 대해서는 하수관로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오지 않으면 여기는 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조금 더 다른 대책을 내실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여쭙보고 싶습니다.

유독물 취급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보전기반 구축부분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환경교육 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대상을 죽 망라하셨습시다만 제가 우선 의아스러운 것은 서울시 공무원들은 어떤 환경교육을 받고 있을까, 그것이 의아스럽습니다. 다른 부서의 일반공무원연수원이라는 곳에 가서 받는, 공무원들이 받는 전체적인 교육내용 중에 환경분야는 어떤 것들이 얼마나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충분한지, 어떤 대안을 더 마련하셔야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관리부분이 어제 전체적인 조례를 심의하면서 봤습시다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녹지총량문제를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습시다만 사실 거기에서 계속하기가 어려워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싶은 것이 여기에 원시성을 유지하는 산림이나 다양성, 희귀성, 특별보호지역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에 꼭 추가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생태계의 녹지축을 연결하는 고리들이 지금 훼손된 곳도 있고 훼손될 수 있는 곳도 있고 이런 것이거든요

요. 그러니까 녹지축이라는 것이 생태계 동식물들이 연결된 녹지축을 따라서 이동하고 보전될 수 있는 이런 축이 마련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인왕산이나 북한산 쪽 수맥에서 나와서 남산을 연결하는 고리가 일부 끊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묘에서부터 세운상가 쪽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실은 도시의 녹지들이 연결되는 축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서울시의 녹지들을 다 파악하실 때 특별히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싶은 것이 현재 녹지축으로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또 그런 면에서 시급히 복원되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일단 찾아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보전을 우선하는 것을 여기 넣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좀 고려를 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페이지 생명의나무 1,000만그루 심기에 관련해서 학교녹화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지나가는 말로 한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저희 지역에 지금 짓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를 짓고 있는데 담장은 아직 다 안했거든요. 지금 서울시에 그런 곳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거기에 나무를 공급해 주면서 담장을 하는 것 대신에 교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우선 한번 타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라도 저는 우선 나무를 한다고 하면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수지면에서 일반 담장을 건설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지 그쪽에 타진해 보셨는지, 타진해 보실 의사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이것은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면서 어떤 것이 원칙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나무를 심을 때 향토수목 교체라는 식재항목이 있습니다. 대개 우리 나라 수목이 아니기 때문에 향토목으로 식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면 이제 새로 심는 나무는 외래종은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또 외래종을 심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나중에 지금 심은 외래종을 또 향토목으로 교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향토목을 교체해서 식재하는 정책이 세워져서 실행되는 것이고, 어떤 지역에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외래수종을 지금 심고 있는 것인지, 외래수종은 특별히 어떤 종을 선정해서 이것은 허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에 관한 태스크포스 부분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지, 이 대상에 포함되는 것들이 어떤 지역이 있는지 이런 것들하고요.

建交部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建交部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鍾來; 수고하셨습니다.

柳辰永 委員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柳辰永 委員; 다소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寬洙 委員도 아까 생명의나무 1000만그루에 대해서 관심

있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 상임위원회의 관심사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이 434억 1,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숲 가꾸기사업에 407억 2,300만원, 한가족 한그루 시민녹화사업에 5,000만원, 도시담장 푸르게하기사업으로 15억 4,200만원, 한강변 수림대 조성 7억 5,000만원, 시민녹화상담실 및 나무은행 운영으로 3억 5,000만원이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울시 전체 면적이 605.60km<sup>2</sup> 중 임야는 26.1%인 157.70km<sup>2</sup>로서 공원면적 129.70km<sup>2</sup> 중 수목은 1,257만 6,000주, 가로수는 25만 6,537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낙엽수로 연간 6개월은 낙엽에 의한 산소공급이 부족하여 대기오염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 생명의나무 1000만 그루심기 사업은 아주 중대한 사업입니다.

프랑스 파리시는 제2차 세계대전 독립을 기념하여 전 시민의 헌금으로 순교자 대성당을 건립하였고, 대도시 대기오염 해소를 위하여 파리시의 동부와 서부지역에 대규모 인공숲인 웨스트호아드와 이스트호아드를 조성하여 시민공원과 대기공기 정화, 시민정서 순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뉴욕시의 센트럴파크, 벤쿠버시의 스탠리파크 수목임야는 대도시 공기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1000만그루 식수사업은 상주인구 1,000만명, 차량 253만대, 교통인구 2,911만명의 대도시 서울의 공기정화와 시민정서 함양과 건강관리, 그리고 환경친화적 도시건설을 위하여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99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생활주변 공원녹지 확충사업에 있어서 아까 우리

金恩京 委員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중구 신당동 349번지 응봉근린공원 30억 4,700만원, 어린이대공원 환경공원조성 29억 6,900만원, 노원구 월계동 산 17-1 위험녹지시설 정비 20억원, 서대문구 문화연립부지 도시고속화도로 보상지 공원 조성 17억원과 보호수 주변 정자마당 조성 4개소 12억 7,500만원, 그리고 주거지내 소공원 조성 37억원 등 66억 7,500만원, 시유지 공원 유지관리개선사업비로서 市 直營 16개 공원 유지관리비 124억 2,100만원, 施設管理公團 위탁관리 135억 9,700만원, 自治區 관리위임 공원 73개소 81.8km<sup>2</sup> 조성 46억 7,500만원 등 306억 9,300만원을 편성 확정하여 생활주변 공원녹지공간 확충사업 규모는 453억 8,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공원녹지 관리에 있어 施設管理公團 위탁사업 내용과 環境管理室의 지도감독 주요내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市 直營 서울대공원, 여의도공원 등 16개 공원과 자치구에 위임된 73개소 81.8km<sup>2</sup> 공원의 99년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9년도 공원용지 보상사업은 아까 우리 車委員도 말씀하셨습니다만 97년 녹지공원 확충사업계획에 포함된 연차별 보상대상인 10만m<sup>2</sup> 이상 공원에 대한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은 325억원, 자치구 어린이공원 보상비 73억원 등 398억원이 편성되었는데 99년도 공원용지 보상의 구체적인 시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산사태 복구비 90억원, 산림병충해 방지와 소규모 공원 정비사업 등 96억 7,200만원의 사업에 있어 자치구 지원사업, 특히 중랑구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녹색위원회에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기능을 부

여하는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19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능을 보면 조례, 규칙,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 등 주요시책의 환경적인 사전검토와 의견수렴이라는 업무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심사기능은 우리 의회의 고유권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녹색위원회에 이런 기능을 부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개정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태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鍾來;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車星煥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車星煥 委員; 간단하게 세 가지만 자료 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봄철이 되어서 황사현상이 오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황사현상에 대한 대책, 그리고 실태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내 곳곳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만 하수도 뚜껑 사이에서 나오는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하수관 바로 위에서는 서 있기가 곤란한 상태인데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도 아래 그런 데에서 뚜껑을 열었을 때 나오는 악취 이런 것이 전 우리 시내로 보면 그것이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보는데요.

이러한 양에 대해서 어떤 실태가 조사된 것이 있는지, 거기에서 나오는 성분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이 시민들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이 파악된 것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내일 폐기물 관리분야 업무보고가 있는데 폐기물 관리분야 업무보고때 김포매립지에 대해서 廢棄物施設課가 지금 관련되어서 업무보고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김포매립지는 경기도와 인천이 합쳐서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예산도 거기에 투입되고 있고, 또 직원도 4급 포함해서 7명인가 그 정도 파견되어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廢棄物施設課에서 적어도 그 김포매립지에서 받고 있는 그런 보고사항 정도는 우리 위원회에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내일 김포매립지에 대해서도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環境水資源委員會에서 알아야 될 자료를 먼저 배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鍾來;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민원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민원은 사석에서 우리 環境管理室長님 그리고 造景課長님 그리고 公園綠地課長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민원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 방법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다시 한 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경기도 광주중학교에 있는 교사 최춘규 씨가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나라 대표적인 가로수가 버즘나무가 있는데 버즘나무의 방패벌레를 방지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존의 방법 같은 경우는 엽면살포로 해서 시가

지에서 약을 뿌려야 하는 관계로 작업인원이 많이 들고 나무가 높아서 위까지 잘 뿌리지를 않아서 살충효과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간주사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간주사를 하면 방제효과가 뚜렷하다, 이 부분은 저도 잘 몰랐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지난해 瑞草區廳에서 실험을 했다고 해서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실험결과를 있는 그대로 실상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瑞草區廳에서 우리 위원회로 온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98년 6월경에 관내 버즘나무 200주에 수간주사 방제실험한 결과 80%의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8%에서 10%의 잎이 오그라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 오그라지는 현상은 수간주사를 하지 않는 나무에도 오그라지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꼭 수간주사를 해서 오그라지는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간주사를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방제효과가 뚜렷하고 두번째 경제적이다, 약제살포를 하면 연간 3~4회 정도 뿌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작업인원도 한 6~7명 필요하다, 그런데 수간주사를 하면 2~3인이 작업함으로써 비용이 한 50% 절감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엽면주사를 하면 행인이나 상가에게 피해를 주는데 수간주사를 하면 피해를 주지 않는다, 또 수간주사를 하면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장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세미나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버즘나무 방패벌레 방제에 있어서 약제주입 등을 이용한 수간주사법 해서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채정석씨, 그다음에 충청북도 청원군청 산림축산과 김순식씨가 이런 세미

나를 통해서, 이 세미나는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시행했습니다. 발표한 내용을 보더라도 수간주사의 장점을 여러 가지로 열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용상으로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읽어드리면 버즘나무 방패벌레 방제방법에 있어서 동일조건하에 방제단가를 비교하면 수간주사는 144만 9,540원이 소요되어 지상약제 살포액보다 한 6배 정도 더 소요되었으나 수간주사는 1회 방제로 지상약제 살포 5회 이상의 방제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방제효과가 크다, 또 경비도 절약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뿐만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된 바와 같이 環境管理室長님께서서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종합 검토해서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한번 내일 답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은 내일 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22時 44分 散會)

---

○出席委員

金鍾來 金在實 金鎬一 金寬洙  
金恩京 金判吉 金興植 朴來雨  
宋美花 柳辰永 李成浩 車星煥  
金基星 李聲九 李松竹

○專門委員

金南中

○出席公務員

行政1副市長 李弼坤

어린이大公園管理事業所長 千載敬

濟州觀光植物園如美地管理事業所長 許南大

環境管理室

室長 都明正

公園綠地課長 崔容豪

大氣保全課長 張興淑